

本草綱目 人蔘條 懸吐 翻譯

尹暢烈*

I. 緒 論

本草綱目は 明代의 醫家인 李時珍의 著書이다. 李時珍의 字는 東壁, 號는 瀕湖이며, 明·武宗 正德 13年(A.D.1518年)에 蕪州(現 湖北省 蕪春縣 蕪州鎮)에서 태어나서 明·神宗 萬曆 21年(A.D.1593年)까지 76세를 살았다. 그의 집안은 四代에 걸친 醫家의 집안으로 祖父는 鈴醫였으며 父親은 李言聞(字 子郁, 號 月池)이다. 그는 일찍이 太醫院吏目을 지냈으며 晩年에는 官職을 버리고 歸家하여 診療와 著書에 힘을 기울였다. 그의 著作으로는 《醫學八脈考》, 《月池人蔘傳》, 《四診發明》, 《痘疹證治》 등이 있었으나 현재 傳하여 지는 책은 없다.

李時珍은 어려서 여러번 鄉試에 응시했으나 落榜하자 23歲때 과거에 대한 뜻을 버리고 醫學의 길로 들어섰다. 그는 父親으로부터 醫學을 傳授받고 34歲때에는 武昌의 楚王 朱英煥의 추천으로 太醫院에서도 奉職하였으며 1年만에 落鄉하였다. 35歲때부터(1552年) 本草綱目の 編輯을 시작하여 27年의 努力을 기울여 古書 800餘種을 參閱하고 名醫, 宿醫, 儒醫를 訪問하여 民間의 經驗方을 구했고 深山과 曠野를 누비며 자료를 觀察 收集하였다. 3번의 修訂을 거쳐 明·萬曆 6年(1578年)에 本草綱目 52卷을 完成하였다.

本草綱目에는 총 1892種의 藥物이 실려 있는데 內容이 豊富하며 考證이 精密하다.

人蔘條는 草部 第十二卷 세번째에 기술되어 있다. 예로부터 人蔘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特産으로써 補氣助陽하는 대표적인 藥材로 알려져 왔다.

藥物의 研究에 있어서는 現代의 成分分析뿐만 아니라 古典을 原文에 따라 순수하고 충실하게 이해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에 筆者는 古典을 現代化하는 一環으로써 本草綱目 人蔘條를 懸吐 翻譯하여 斯界에 發表하는 바이다.

이 翻譯의 底本으로써는 本草綱目(校點本), 新

華書店北京發行所發行, 人民衛生出版社出版, 1979年版을 使用하였다. 本草綱目は 胡承龍이 版刻한 金陵本 以後 380餘年을 걸쳐오면서 20~30次의 重版이 이루어지면서 적지않은 錯誤가 발생하였으며 또한 本書 自體에도 약간의 著者의 誤謬가 있었다. 本草綱目(校點本)은 總 千여곳을 校定하였으며 人蔘條에서만도 모두 42곳을 校定하여 原文의 理解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II. 本 論

人蔘은 神農本草經의 上品에 실려있다. (譯註: 현재는 주로 人蔘으로 쓰고 있는데 본래 人蔘이라 쓰던 것을 후세에 초두를 가미하여 草本植物임을 나타낸 것이다.)

【釋名】

(譯註: 釋名이란 명칭의 유래와 異名에 대해 고찰하고 있는 部分이다.)

人蔘(蔘의 音은 '삼'이다. 或 생략하여 蔘이라 고도 쓴다), 黃參(吳晉本草), 血參(名醫別錄), 人術(神農本草經), 鬼蓋(神農本草經), 神草(名醫別錄), 土精(名醫別錄), 地精(廣雅), 海腴(海魚), 皺面還丹(廣雅), (譯註: 명칭 또는 異名의 뒤 괄호안에 있는 것은 그 명칭이 실려 있는 책이다.)

[時珍曰] 人蔘은 年深하면 浸漸長成者가 根如 人形 有神故로 謂之 人蔘, 神草라. 蔘字는 從 浸 하니 亦浸漸之義라. 浸은 卽浸字니 後世因字文繁하야 遂以參星之字로 代之하니 從簡便爾라. 然이나 承誤日久하야 亦不能變矣러니, 惟張仲景傷寒論에 尙作浸字라 別錄에 一名人微라하니 微는 乃寢字之 訛也라. 其成有階級故로 曰人術이라. 其草가 背陽向陰故로 曰鬼蓋라. 其在五參에 色黃하면 屬土而補脾胃하며, 生陰血故로 有黃參, 血參之名이라. 得地之精靈故로 有土精, 地精之名이라. 廣五行記에 云 隋文帝時에 上黨有人宅後에 每夜聞人呼聲이나 求之不得이러니 去宅一里許에 見人參枝葉異常하고

*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教室

掘之入地五尺하야 得人參한데 一如人體하고 四肢畢備라. 呼聲遂絶이라 하니라. 觀此則土精之名을 尤可證也라. 禮斗威儀에 云 下有人參하면 上有紫氣라 하니라. 春秋運斗樞에 云 搖光星散而爲人參이니 人君이 廢山瀆之利則搖光이 不明하고 人參이 不生이라하니 觀此則神草之名을 又可證矣라.

【譯】

[李時珍이 이르기를] 人參은 해가 오래되면 점차로 자란 것이 뿌리가 사람의 모습같이 精神이 있는 듯 하므로 人參, 神草라고 부른다. 參字는 浸에서 나왔으니 또한 점점(점차로)의 뜻이다. 浸은 곧 浸字니 후세에 글자가 복잡하여서 參星¹⁾의 글자로 대체한 것이니 간편함을 좇았을 따름이다. 그러나 잘못된 것을 계승한 것이 오래되어 또한 본 모습을 회복하지 못하였더니 오직 張仲景의 傷寒論에 여전히 浸字로 기록하고 있다. 名醫別錄에서 一名 人微(인미)라 하였는데 微는 浸字의 오류이다. 그 자라는데 단계가 있기 때문에 人銜²⁾(인함)이라고도 부른다. 人參은 陽(햇빛)을 등지고 陰(그늘)을 향하므로 鬼蓋(귀개)라고 부른다. 다섯 종류의 參(삼)에 있어서 색깔이 노란것은 土(토)에 屬(속)하여 脾胃(비위)를 補(보)하며 陰血(음혈)을 生하기 때문에 黃參, 血參의 명칭이 있다. 人參(인삼)은 땅의 精靈(정령)을 얻었기 때문에 土精, 地精의 명칭이 있다. 廣五行記³⁾(광오행기)에 이르되 隋나라 文帝때에 上黨⁴⁾지방의 어떤 사람의 집 뒤에 밤마다 사람이 부르는 소리가 들리나 찾아도 얻지 못하였더니 집에서 一里쯤 떨어진 곳에서 人參의 가지와 잎사귀가 異常한 것을 발견하고 땅을 五尺을 파 들어가 人參을 캐는데 꼭 사람의 모습과 같고 四肢가 모두 갖추어져 있었다. 그 뒤로 부르는 소리가 드디어 끊어졌다 하니라. 이것을 본즉 土精이라는 명칭을 더욱 입증 할수가 있다. 禮斗威儀(예두위의)라는 책에서 이르기를 아래에는 人參이 있으면 위에는 紫氣가 있다하니라. 春秋運斗樞

(춘추운두추)에 이르기를 搖光星(요광성; 북두칠성의 7번째 별)이 흩어져서 人參이 되니, 임금이나 강 의 이로움을 폐하면 搖光星(요광성)이 빛을 잃고 人參이 生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이를 보건대 神草라는 명칭을 또 증명할 수가 있는 것이다.

【集解】 [別錄에 曰] 人參은 生上黨山谷과 及 遼東하니 二月, 四月, 八月上旬에 采根하야 竹刀刮 暴乾호대 無令見風이라 根如人形者는 有神이라. [普曰] 或生邯鄲하니 三月에 生葉小銳하고, 枝黑莖有毛라. 三月, 九月에 采根하니 根有手足하고, 面目如人者는 神이니라. [弘景이 曰] 上黨은 在冀州西南이라 今來者는 形長而黃하고 狀如防風하며 多潤實而甘이라. 俗乃重百濟者는 形細而堅白하고 氣味薄于上黨者라. 次用高麗者는 高麗地近遼東하니 形大而虛軟하니 不及百濟하고 並不及上黨者라. 其草가 一莖直上하고 四五葉이 相對生하며 花紫色이라. 高麗人作 人參讚에 云 三極五葉이오 背陽向陰이라 欲來求我니 椶樹相尋이라 하니라. 椶音賈니 樹似桐하고 甚大라. 陰廣則多生하고 采作甚有法이라 今近山亦有나 但作之不好라. [恭曰] 人參見用은 多是高麗百濟者라 潞州太行紫團山所出者는 謂之紫團參이라. [保升이 曰] 今沁州, 遼州, 澤州, 箕州, 平州, 易州, 檀州, 幽州, 媯州, 並州에 並出人參하니 蓋其山이 皆與太行連亘하야 相接故也니라. [珣曰] 新羅國所產者는 有手足하고 狀如人形하니 以杉木으로 夾定하고 紅絲로 纏飾之라. 又沙州參은 短小不堪用이라.

【譯】

[名醫別錄(명의별록)에서 이르기를] 人參은 上黨(지금의 山西省 長治市를 中心한 晉東南地區)의 山谷 및 遼東⁵⁾에서 生하니 2월, 4월, 8월 상순에 뿌리를 캐서 대나무 갈로 다듬어 햇빛에 말리되 바람은 쏘이지 말아야 한다. 뿌리가 사람 모습과 같은 것은 精神이 있다. [오보가 이르기를] 혹 한단(지금의 河北省 한단시 주위)에서 生하니 3월에 작고 날카로운 잎이 生하고 가지는 검고 줄기에는 털이 나 있다. 3월, 9월에 뿌리를 캐니 뿌리에는 手足이 있고 얼굴과 눈이 있어 사람과 같은 것은 精神이 있다. [陶弘景이 이르기를] 上黨은 冀州 西南에 있다. 요즘은 나오는 것은 형태가

- 1) 하늘의 28宿中 西方白虎七宿의 7번째 별 자리
- 2) 銜은 직함 함字로 관리의 位階를 말한다.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직위가 승진하는 것이 성장에 단계가 있는 인삼과 비슷하다고 비유한 것이다.
- 3) 書名. 자세한 내용은 알 수가 없다.
- 4) 古縣名. 隋나라 開皇때 두었다. 治所는 지금의 山西省 長治市

- 5) 郡名. 지금의 遼東省 大陵河以東

길고 누르며 모습이 防風(방풍)같으며 윤기가 있고 두툼하며 甘味(감미)가 있다. 세속에서 百濟産을 귀중히 여기는 데 百濟産은 형태가 가늘고 단단하고 흰색을 띠며 氣味가 上黨産보다 薄하다. 다음으로 高句麗産을 쓰는데 高句麗는 遼東과 가깝다. 형태는 크고, 허약하니 百濟産에 미치지 못하고 아울러 上黨産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 풀은 줄기 하나가 곧게 올라가고 넷 내지 다섯 잎사귀가 마주보고 생하며, 꽃은 紫色이다. 高句麗 사람이 지은 人參讚歌에 이르기를 “가지가 셋에 다섯잎이 오 陽(햇빛)을 등지고 陰(그늘)을 향한다. 나(인삼)를 찾고자 할진대 椴나무를 찾으라”하니라. 椴의 풀은 ‘가’니 나무의 모습이 오동나무와 같고 아주 크다(개오동나무). 그늘이 넓으면 많이 생하고, 캐고 기르는데 상당한 法則이 있다. 지금도 가까운 산에 있으나 단지 기르는 법이 좋지 않다. [蘇恭이 이르기를] 人參을 쓰는 것은 흔히 高句麗, 百濟産이다. 潞州⁶⁾(노주) 太行山(태항산)의, 紫團山(자단산)에서 나는 것은 紫團參이라고 한다. [韓保升이 이르기를] 지금의 沁州(심주; 현재의 山西省 沁源縣), 遼州⁷⁾(요주), 澤州⁸⁾(지금의 山西省 晉城市 주위), 箕州⁹⁾(기주), 평주(지금의 河北 盧龍縣 주위), 역주(지금의 河北 易縣 주위), 단주(지금의 北京市 密雲縣 주위), 유주(지금의 北京市), 규주¹⁰⁾, 병주(지금의 산서성 태원 주위)에서 모두 人參이 나오는데 그 산이 모두 태항산과 함께 뻗어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태항산은 산서성과 하북성을 가로 지르는 큰 산이다.) [李珣이 이르기를] 新羅에서 나오는 것은 손발이 달려 있고 모습이 사람과 같으니 삼나무에 담았고 붉은 실로 묶었다. 또 沙州參(사주삼)은 짧고 작아서 쓸 수가 없다.

[頌曰] 今河東諸州와 及泰山에 皆有之라 又有 河北 樅場及 閩中來者는 名 新羅人參이나 俱不及 上黨者佳라. 春生苗하고 多于 深山背陰 近 椴漆下 濕潤處라. 初生小者는 三四寸許로 一極五葉이오 四五年後에 生兩極五葉이나 未有花하며 莖至十年後에 生三極하며 年深者는 生四極하고 各五葉이라. 中心生一莖하니 俗名 百尺杵라. 三月, 四月에 有花하니 細小如粟하고 蕊如絲하며 紫白色이라 秋後結子하니 或七八枚로 如大豆하며 生靑熟紅하고 自落이라. 根如人形者는 神이라. 泰山出者는 葉幹靑 根白하야 殊別이라. 江淮間에 出一種土人參하니 苗長一二尺하고 葉如匙而小하야 與 桔梗相似나 相對生하고 生五, 七節이라 根亦如 桔梗而柔하며 味極甘美라. 秋生紫花하고 又帶靑色이라. 春秋采根하야 土人或 用之라 相傳欲試 上黨人參인댄 但使二人 同走케 하야 一舍人參하고 一空口하야 度走三五里許하야 其不含人參者는 必大喘하고 舍者가 其息自如하면 其人參이 乃眞也라. [宗奭이 曰] 上黨者는 根頗纖長하며 根下垂하니 有及一尺餘者라. 或十岐者하니 其價與銀等하고 稍爲難得이라. 土人이 得一窠則置板上하고 以新彩로 絨飾之라. [嘉謨曰] 紫團參은 紫大稍扁이라 百濟參은 白堅且圓하니 名 白條參이오 俗名 羊角參이라 遼東參은 黃潤纖長有鬚하니, 俗名 黃參이오 獨勝이라 高麗參은 近紫體虛라 新羅參은 亞黃味薄이라 肖人形者는 神하고 其類鷄腿者는 力洪이라.

[譯]

[蘇恭이 이르기를] 지금 河東의 諸州와 及 泰山에 모두 있다. 또 河北의 樅場(지금의 河北省 張家口地區 沽源縣 西南) 및 閩中(지금의 福建省)에서 온 것을 新羅人參이라 하나 모두 上黨産처럼 좋은 것에 미치지 못한다. 봄에 싹이 나고 깊은산 그늘진 곳 개오동나무와 옷나무 아래 濕潤한 곳에 많다. 처음 생한 작은 것은 3~4寸으로 한 줄기에 다섯 잎이오, 4~5年 뒤에 두 줄기 다섯 잎이 생하나 꽃이 피지 않고 줄기는 10年 후에 세 가지가 생하며 오래 묵은 것은 네 가지가 생하고 各各 잎은 다섯개이다. 中心에 한 줄기가 생하니 세속에서 百尺杵라고 부른다. 3月, 4月에 꽃이 피는데 가늘고 작은 것이 조갈고 꽃술은 실과 같으며 紫白色이다. 가을에 씨를 맺는데 7~8個로 큰 콩과 같으며 생것은 푸르고 익은 것은 붉으며 저절로 떨어진다. 뿌리가 사람모습과 같은 것은 神效하다. 泰山에서 나오는 것은 잎 줄기가 푸르고 뿌리는 白

6) 州名. 지금의 山西省 長治, 武鄉, 襄垣, 沁縣, 黍城, 屯留, 平順, 長子, 壺關 및 河北省 涉縣 등의 地區가 해당된다.
 7) 州名. 지금의 山西省 左權, 和順, 榆社 등의 縣이 해당된다.
 8) 지금의 山西省 沁水, 陽城, 晉城, 高平, 陵川 등의 縣地가 해당된다.
 9) 唐代에 설치한 遼州로 얼마 지나지 않아 箕州로 名稱을 바꾸었다.
 10) 州名. 지금의 河北省 張家市, 懷來, 延慶, 赤城, 崇禮, 張北, 懷安, 琢鹿 등의 縣地가 해당된다.

色으로 다른 것과 아주 구별된다. 江淮間에 일종의 土人參이 나오는데 싹의 길이가 1~2尺에 이르고 잎은 순가락 같으면서도 작아 도라지와 같으나 마주보고 잎이 나며 다섯 잎이요 일곱 마디이다. 뿌리 또한 도라지처럼 부드러우며 맛이 아주 달고 좋다. 가을에 자주색 꽃이 피고 또 靑色을 띤다. 봄, 가을에 뿌리를 캐서 土인들이 더러 사용한다. 세상에 전해오기를 上黨人參을 구별하고자 할진댄 두사람을 함께 달리게 하여 한사람은 人參을 물고, 다른 한 사람은 맨입으로 3~5리쯤을 달려 人參을 물지 않은 자가 반드시 크게 헐떡거리고 물고 편 자가 호흡이 평소와 같으면 그 人參이 眞品이다. [寇宗奭이 이르기를] 上黨人參은 뿌리가 가늘고 길며 뿌리가 아래로 쪽 뻗었으니 1尺정도에 까지 이르는 것도 있다. 或 10個로 갈라진 것도 있는데 그 값이 銀과 같고 거의 얻기가 힘들다. 土人이 한 무더기를 얻으면 판떼기 위에 놓고 새로운 채색비단으로 그것을 싼다. [陳嘉謨가 이르기를] 紫團參은 紫色으로 크며 약간 편평하다. 百濟參은 희고 굳으며 또한 둥그니 白條參이라고 하고 俗稱 羊角參(양각삼)이라고 한다. 遼東參은 누르고 윤기가 있고 가늘고 길며 실뿌리가 있으니 俗稱 黃參이라 하는데 유독히 뛰어나다. 高麗參은 紫色에 가깝고 몸체가 허약하다. 新羅參은 가지가 黃色이고 味가 薄하다. 사람 모습과 같은 것은 神效하고 닭의 다리와 비슷한 것은 힘이 뛰어나다.

[時珍이 曰] 上黨은 今潞州也라. 民이 以人參爲地方害라하여 不復采取라. 今所用者는 皆是遼參이라. 其高麗, 百濟, 新羅三國은 今皆屬於朝鮮矣니 其參이 猶來中國互市라 亦可收子니 于十月下種하니 如種菜法이라. 秋冬采者는 堅實하고 春夏采者는 虛軟하니 非地產有虛實也라. 遼參連皮者는 黃潤色如防風하고 去皮者는 堅白如粉하고 僞者는 皆以沙參, 薺萇, 桔梗으로 采根造作亂之라. 沙參은 體虛無心而味淡하고, 薺萇는 體虛無心하고, 桔梗은 體堅有心而味苦호되, 人參은 體實有心而味甘하고, 微帶苦하며, 自有餘味하니 俗名金井玉蘭也라. 其似人形者는 謂之孩兒參이니 尤多贗僞라. 宋蘇頌圖經本草所繪潞州者는 三椏五葉이니 眞人參也오 其潞州者는 乃沙參之苗葉이오 沁州, 兗州者는 皆薺萇之苗葉이오 其所云江淮土人參者는 亦薺萇也니 竝失之詳審이라. 今潞州者도 尙不可得하니 則他處者는 尤不足信矣라. 近又有薄夫以人參先浸取汁自啜하고 乃晒乾復售호되 謂之湯參이라하니 全不任用이니 不

可不察이니라. 考月池翁諱言聞 字子郁이 銜太醫吏目이라. 嘗著人參傳上下卷하야 甚詳이나 不能備錄하고 亦略節要語于下條云耳라.

[譯]

[李時珍이 이르기를] 上黨은 지금의 潞州(노주)이다. 백성들이 人參이 땅에 해롭하고 여겨 재배를 하지 않는다. 지금 쓰고 있는 것은 모두 遼參(요삼)이다. 高句麗, 百濟, 新羅의 三國은 지금 모두 朝鮮에 屬하니 그 參이 中國에 들어와서 거래가 되고 있다. 또 씨를 받을 수 있으니 10월에 씨를 뿌리니, 뿌리고 채취하는 시기를 같이 한다. 가을, 겨울에 채취한 것은 건실하고 봄, 여름에 채취한 것은 虛軟하니 產地에 따라 虛實이 있는 것이 아니다. 요삼으로 껍질이 붙어 있는 것은 黃潤色으로 防風과 같고 껍질을 제거한 것은 단단하고 흰 것이 분과 같고 가짜는 모두 더덕, 잔대, 도라지로 뿌리를 캐서 造作(조작)하여 혼돈시킨 것이다. 더덕은 몸체가 虛하고 心이 없으며 味는 담담하고, 잔대는 몸체가 단단하며 心이 있고 맛이 쓰되, 人參은 몸체가 實하고 心이 있으며 맛은 달고 약간 苦味를 띠며 나머지 맛이 있으니 世俗에서는 金井玉蘭이라 부른다. 사람모습과 같은 것은 孩兒參이라고 부르니 더욱 가짜가 많다. 宋나라 蘇頌의 圖經本草에서 그린 바의 潞州參은 세 가지에 다섯 잎이니 眞品의 人參이오, 潞州(지금의 安徽省 潁州 시 주위)의 것은 더덕의 잎사귀요, 沁州, 兗州(지금의 山東省 兗州)의 것은 모두 잔대의 잎사귀요, 이른바 江淮間(강희간)의 土人參이라는 것은 또한 잔대니 모두 상세히 살피지 못한 것이다. 지금 潞州産(노주산)도 오히려 얻을 수 없으니 다른 곳에서 나왔다는 것은 더욱 믿을 수가 없다. 근래에 또 심보 나쁜 사람이 인삼을 먼저 물에 담가 즙을 취해서 스스로 마시고 다시 햇빛에 말려 내다 팔되 湯參이라고 하니 전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으니 가히 살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돌아가신 아버지 月池翁(號가 月池이다) 이름은 李言聞, 字는 子郁(자옥)께서 太醫院의 吏目벼슬을 역임하셨다. 일찌기 人參傳上下卷을 지은것이 아주 상세하나 이冊에 다 신지를 못하지만 또한 잊점되는 말을 아랫條文에 취해서 기록한다.

【修治】 [弘景曰] 人參은 易蛀蚶하니 唯納新器中密封하면 可經年不壞니라 [炳曰] 人參은 類見風日則易蛀하니 惟用盛過麻油瓦罐하야 泡淨焙乾

하야 入華陰細辛與參호대 相間收之하야 密封하면 可留經年이나라. 一法에 用淋過竈灰晒乾籬收라도 亦可니라. [李言聞曰] 人蔘은 生時에 背陽故로 不喜見風日이나라. 凡生用宜吹咀요 熟用宜隔紙焙之 하야 或醇酒潤透하야 吹咀焙熟用호대 并忌鐵器니라.

[譯]

【修治】 [陶弘景] 이 이르기를 人蔘은 쉽게 벌레가 나니 오직 새 그릇 가운데 넣고 단단히 封하면 해가 지나도 썩지 않느니라 [蕭炳] 이 이르기를 人蔘은 자주 바람과 햇빛을 쏘이면 쉽게 벌레가 나니 오직 참기름을 담았던 오지그릇을 깨끗이 닦아내고 말려서 華陰(陝西省 華陰縣)에서 나는 細辛과 人蔘을 함께 넣어 서로 사이사이에 담아 密封하면 一年 이상을 지낼 수 있다. 一法에 갓물로 씻고 햇볕에 말린 그릇 속에 담더라도 또한 可하다. [李言聞] 이 이르기를 人蔘은 자랄 때에 햇볕을 싫어하기 때문에 바람이나 햇볕을 쏘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날것으로 쓸 때는 썰어서 쓰고 익혀 쓸 때는 종이에 싸서 말리며 或은 진한 술에 담가 말려서 쓰되 모두 鐵器를 써서는 안된다.

根 [氣味] 甘하고 微寒하며 無毒이라. [別錄曰] 微溫이라 [普曰] 神農에 小寒이오 桐君 雷公은 苦요 黃帝 岐伯은 甘하고 無毒이라. [元素曰] 性溫하고 味甘微苦하며 氣味具薄하야 浮而升하니 陽中之陽也라 又曰 陽中微陰이라. [之才曰] 茯苓 馬藭으로 爲之使오 惡溲疏 鹵碱하고 反藜蘆라 一云 畏五靈脂하고 惡皂莢,黑豆하며 動紫石英이라 [元素曰] 人蔘이 得升麻引用하면 補上焦之元氣하고 瀉肺中之火하며 得茯苓引用하면 補下焦之元氣하고 瀉腎中之火하며 得麥門冬則生脈하고 得乾薑則補氣라. [昺曰] 得黃芪 甘草하면 乃甘溫으로 除大熱 瀉陰火 補元氣요 又爲瘡家聖藥이나라.

[震亨曰] 人蔘은 入手太陰이라. 與藜蘆로 相反하니 服參一兩할새 入藜蘆一錢하면 其功이 盡廢也니라 [言聞曰] 東垣李氏 理脾胃 瀉陰火의 交泰丸內에 用人蔘 皂莢하니 是惡而不惡也라 古方에 療月閉에 四物湯加人蔘, 五靈脂하니 是畏而不畏也라. 又療痰在胸膈할새 以人蔘, 藜蘆로 同用以取涌越하니 是激其怒性也라 此皆精微妙奧니 非達權衡者면 不能知니라.

[譯]

뿌리의 [氣味] 는 甘하고 微寒하며 毒이 없다. [名醫別錄] 에 이르기를 微溫하다고 하였다. [吳普] 가 이르기를 神農本草經에는 小寒이라고 되어 있고 桐君采藥錄 雷公藥對은 苦하다고 되어 있고 黃帝와 岐伯은 甘하고 無毒하다고 하였다. [張元素] 가 이르기를 性은 溫하고 味는 甘微苦하여 氣와 味는 모두 薄하며 성질이 뜨고 올라가니 陽中의 陽에 속한다. 또 이르기를 陽中의 微陰이 된다. [徐之才] 가 이르기를 茯苓 馬藭으로 佐使를 삼을 것이요, 溲疏 鹵碱을 相惡하고 藜蘆와 相反한다. 또 이르기를 五靈脂를 相畏하고 皂莢과 黑豆를 相惡하며 紫石英을 動케 한다. [張元素] 가 이르기를 人蔘이 升麻와 함께 작용하면 上焦의 元氣를 補하고 肺中의 火를 瀉하며 茯苓과 함께 작용하면 下焦의 元氣를 補하고 腎中의 火를 瀉하며 麥門冬을 얻으면 脈을 生하고 乾薑을 얻으면 氣를 補한다. [李杲] 가 이르기를 黃芪와 甘草를 얻으면 甘溫한 藥性으로 大熱을 除去하고 陰火를 瀉하며 元氣를 補하고 또 瘡家의 聖藥이 된다. [朱震亨] 이 이르기를 人蔘은 手太陰으로 들어간다. 藜蘆와 相反하니 人蔘一兩을 복용할때 藜蘆一錢을 넣으면 그 효과가 다 없어진다. [李言聞] 이 이르기를 李東垣의 脾胃를 다스리고 陰火를 瀉하는 交泰丸 속에 人蔘과 皂莢을 用했으니 이는 相惡의 관계이지만 싫어하지 않는 것이다. 古方에 月經閉를 치료할 때에 四物湯에 人蔘과 五靈脂를 加하니 이는 相畏의 관계이지만 畏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痰이 胸膈에 있는 것을 치료할 때에 人蔘과 藜蘆를 함께 써서 嘔吐를 시키니 이는 그 怒하는 성질을 激發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다 精微하고 妙奧한 것이니 權道(모든 일을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처리하는 것)에 통달한 자가 아니면 能히 알 수 없는 내용이다.

【主治】 補五臟하야 安精神하고 定魂魄하며 止驚悸하고 除邪氣하며 明目開心益智하니 久服하면 輕身延年이라. (本經) 療腸胃中冷과 心腹鼓痛과 胸脅逆滿과 霍亂吐逆하며 調中하고 止消渴하며 通血脈하고 破堅積하며 令人不忘이라. (別錄) 主五勞七傷과 虛損痰弱하고 止嘔噦하며 補五臟六腑하고 保中守神이라. 消胸中痰하야 治肺痿及癆疾과 冷氣逆上과 傷寒不下食하니 凡虛而多夢紛紜者에 加之니라. (甄權) 止煩燥하고 變酸水라(李珣) 消食開胃하고 調中治氣하며 殺金石藥毒이라(大明) 治肺胃腸氣不足과 肺氣虛促과 短氣少氣하고 補中緩中하야

瀉心脾胃中火邪하며 止渴生津液이라(元素) 治男婦一切虛證과 發熱自汗과 眩暈頭痛과 反胃吐食과 痰瀉과 滑瀉久痢과 小便頻數淋瀝과 勞倦內傷과 中風中暑와 痿痺와 吐血嗽血下血과 血淋血崩과 胎前產後諸病이라(時珍)

[譯]

【主治】 五臟을 補하여 精神을 편안하게 하고 魂魄을 安定시키며 가슴이 두근거리는 驚悸를 그치게 하고 邪氣를 除하며 눈을 밝게 하고 마음을 열며 지혜를 더하게 하니 오래 복용하면 몸을 가볍게 하고 수명이 연장된다(神農本草經). 腸胃가 冷하고 心腹이 뛰고 아픈 것과 胸脅이 치받치면서 그득한 것과 霍亂과 嘔吐를 治療하며 調中하고 消渴을 그치게 하며 血脈을 통하게 하고 단단한 積聚를 깨뜨리며 기억력을 좋게 한다(名醫別錄). 五勞症과 七傷症과 虛損, 痰, 虛弱한 것을 치료하고 嘔吐를 그치게 하며 五臟六腑를 補하고 속을 保하고 神을 지킨다. 胸中의 痰을 消散시켜 肺痿 및 癆疾과 冷氣가 逆上하는 것과 傷寒으로 飲食이 내리 가지 않는 것을 治療하니 모든 虛弱해서 꿈이 많고 뒤숭숭한 자에 人參을 加한다. (甄權의 藥性本草) 煩燥를 그치게 하고 트림할 때에 신물을 變化시킨다. (李珣의 海藥本草) 음식을 소화시키어 胃를 열고 中宮을 調和시키고 氣를 다스리며 金石藥의 毒을 감쇄시킨다. (大明) 肺胃의 陽氣不足과 肺氣虛促과 短氣 少氣를 治療하고 中宮을 補하고 따뜻하게 하여 心肺脾胃 속의 火邪를 瀉하며 갈증을 그치게 하고 津液을 生한다. (張元素) 男子와 婦人의 一切 虛證과 發熱 自汗과 眩暈 頭痛과 反胃症 吐食症과 痰瀉과 몸은 설사(滑瀉)와 오래된 痢疾(久痢)과 小便이 頻數하고 시원하지 않은 것(淋瀝)과 勞倦症과 內傷症, 中風, 中暑, 痿痺, 吐血, 嗽血, 下血과 血淋, 血崩과 胎前(妊娠中)과 出產 後의 모든 病을 治療한다(時珍).

【發明】 [弘經曰] 人參은 爲藥切要니 與甘草 同功이니라. [杲曰] 人參은 甘溫하야 能補肺中元氣하니 肺氣旺則四藏之氣皆旺하야 精自生而形自盛하니 肺主諸氣故也라 張仲景이 云 病人汗後身熱亡血하며 脈沈遲者와 下利身涼하며 脈微血虛者는 并加人參이니라. 古人이 血脫者는 益氣하니 蓋血不自生하고 須得生陽氣之藥이라야 乃生하니 陽生則陰長하야 血乃旺也라 若單用補血藥하면 血無由而生矣라 素問에 言無陽則陰無以生하고 無陰則陽無

以化라하니 故로 補氣須用人參하고 血虛者도 亦須用之니라. 本草十劑에 云 補可去弱이니 人參羊肉之屬이 是也라 하니 蓋人參은 補氣하고 羊肉은 補形하니 形氣者는 有無之象也라 [好古曰] 潔古老人이 言 以沙蔘으로 代人參은 取其味甘也라 然이나 人參은 補五臟之陽하고 沙蔘은 補五臟之陰하니 安得無異리오. 雖云補五臟이라도 亦須各用本臟藥하야 相佐使引之니라 [言聞曰] 人參은 生用氣涼하고 熟用氣溫하며 味甘補陽하고 味苦補陰이라. 氣主生物하니 本乎天하고 味主成物하니 本乎地오 氣味生成은 陰陽之造化也라 涼者는 高秋清淑之氣로 天之陰也니 其性降하고 溫者는 陽春生發之氣로 天之陽也니 其性升하며 甘者는 濕土化成之味로 地之陽也니 其性浮하고 微苦者는 火土相生之味로 地之陰也니 其性沈이라 人參은 氣味俱薄하니 氣之薄者는 生降熟升하고 味之薄者는 生升熟降이라. 如土虛火旺之病은 則宜生蔘하니 涼薄之氣가 以瀉火而補土니 是純用其氣也오 脾虛肺怯之病은 則宜熟蔘이니 甘溫之味가 以補土而生金이니 是純用其味也라 東垣이 以相火乘脾하야 身熱而煩하고 氣高而喘하며 頭痛而渴하고 脈洪而大者에 用黃蘗佐人參이라. 孫真人이 治夏月에 熱傷元氣하야 人汗大泄하야 欲成痿厥할새 用生脈散하야 以瀉熱火而救金水하니 君以人參之甘寒하야 瀉火而補元氣하고 臣以麥門冬之苦甘寒하야 清金而滋水源하며 佐以五味子酸溫하야 生腎精而收耗氣하니 此皆補天元之眞氣오 非補熱火也라 白飛霞云 人參煉膏服하면 回元氣于無何有之鄉하니 凡病後氣虛와 及肺虛咳嗽은 并宜之오 若氣虛有火者는 合天門冬膏하야 對服之니라.

[譯]

【發明】 [陶弘經] 이 이르기를 人參은 아주 요 긴한 藥이니 甘草와 功이 같다. [李杲] 가 이르기를 人參은 甘溫하야 能히 肺中의 元氣를 補하니 肺氣가 旺盛해지면 四藏의 氣運이 다 旺盛해져서 精이 저절로 생겨나고 形이 저절로 盛해지나니 肺가 모든 氣를 주관하기 때문이다. 張仲景이 이르되 환자가 땀을 낸 뒤에 身熱 亡血하며 脈이 沈遲한 자와 下利하고 身涼하며 脈微하고 血虛한 자에 모두 人參을 加한다고 하였다. 古人이 血脫한 자는 益氣하니 대개 血은 스스로 생겨나지 않고 반드시 陽氣를 生하는 藥을 얻어야만 생겨나니 陽이 生하면 陰이 자라나서 血이 비로소 旺盛하게 된다. 만약 홀로 補血藥만 사용하면 血은 生할 수가 없는 것이다. 素問에 이르기를 陽이 없으면 陰이 生하지

못하고 陰이 없으면 陽이 化하지 못한다고 하였으니 따라서 補氣할 때에는 반드시 人參을 사용하고 血虛한 者도 또한 반드시 사용해야만 한다. 本草의 十劑에 이르기를 補하면 弱한 것을 제거하니 人參과 羊肉의 무리가 이것이다라 하였으니 대개 人參은 補氣하고 羊肉은 補形하니 形과 氣는 있고 없는 形象이다. [王好古]가 이르기를 張潔古 老人이 말하기를 沙蔘으로 人參을 대신하는 것은 그 味가 甘한 것을 취한 것이다. 그러나 人參은 五臟의 陽을 補하고 沙蔘은 五臟의 陰을 補하니 어찌 다름이 없으리오. 비록 五臟을 補한다고 이르지만 또한 반드시 각각 本臟藥을 써서 서로 佐藥 使藥을 삼아 引導할 것이다. [李言聞]이 이르기를 人參은 生用하면 氣가 涼하고 熟用하면 氣가 溫하며 味甘한 것은 補陽하고 味가 苦한 것은 補陰한다. 氣는 物을 生하는 것을 주관하니 하늘에 근본하고 味는 物을 이루는 것을 주관하니 땅에 근본하며 氣味가 生하고 成하는 것은 陰陽의 造化이다. 涼한 것은 가을의 淸淑한 기운으로 하늘의 陰이니 그 性이 下降하며 溫한 것은 陽春의 生發하는 氣運으로 하늘의 陽이니 그 性이 上升하며 甘한 것은 濕土가 化成된 味로 땅의 陽이니 그 性이 浮하고 微苦한 것은 火土가 相生하는 味로 땅의 陰이니 그 性이 沈한다. 人參은 氣味가 다 薄하니 氣가 薄한 것은 날것은 下降하고 익힌 것은 上升하며 味가 薄한 것은 날것은 上升하고 익힌 것은 下降한다. 만약 土가 虛하여 火가 盛한 病은 生蔘이 마땅하니 涼薄한 氣가 瀉火하고 補土하니 이는 순전히 그 氣를 쓴 것이요. 脾臟이 虛하고 肺臟이 怯弱한 病은 熟蔘이 마땅하니 甘溫한 味가 補土하고 生金하니 이는 순전히 그 味를 쓴 것이다. 東垣이 相火가 脾를 침범하여 身熱하며 煩燥하고 氣高 喘息하며 頭痛 口渴하고 脈이 洪大한 者에 黃蘗을 쓰면서 人參을 佐藥으로 사용하였다. 孫眞人이 여름에 熱이 元氣를 損傷하여 땀이 크게 나서 痿厥이 되는 것을 치료 할 때 生脈散을 써서 熱火를 瀉하고 金水를 救援했으니 人參의 甘寒한 것을 君藥으로 하여 瀉火하고 元氣를 補하고 麥門冬의 苦甘寒한 것을 臣藥으로 하여 淸金하고 水源을 滋하며 五味子の 酸溫한 것을 佐藥으로 하여 腎精을 生하고 耗氣를 거두어 들였으니 이것은 모두 天元의 眞氣를 補한 것이지 熱火를 補한 것이 아니다. 白飛霞가 이르기를 人參煉膏를 服用하면 本源處에서 元氣를 回復시키니 모든 病後 氣虛 및 肺虛로 咳嗽하는 자는 모두 마땅하고 만약 氣虛해서 火가 있

는 者는 天門冬膏를 合하여 교대로 복용할 것이다.

[正誤] [數曰] 夏月에 少使人參하면 發心疝之患이라. [好古曰] 人參은 甘溫해야 補肺之陽하고 泄肺之陰하나니 肺受寒邪엔 宜此補之어니와 肺受火邪엔 則反傷肺하니 宜以沙蔘代之니라. [王綸曰] 凡酒色過度해야 損傷肺腎眞陰해야 陰虛火動해야 勞嗽吐血咳血等證에 勿用之니 蓋人參은 入手太陰해야 能補火故로 肺受火邪者는 忌之라. 若誤服 蔘芪甘溫之劑면 則病日增하고 服之過多면 則死不可治니라 蓋甘溫은 助氣하고 氣屬陽하니 陽旺則陰愈消니 惟宜苦甘寒之藥으로 生血降火니라. 世人이 不識하고 往往服蔘芪爲補하여 而死者多矣라 [言聞曰] 孫眞人云 夏月에 服生脈散腎瀉湯三劑면 則百病不生이라하고 李東垣亦言生脈散 淸暑益氣湯은 乃三伏瀉火益金之聖藥이라호대 而雷敷反謂發心疝之患이라하니 非矣라. 疝은 乃膈旁積氣니 非心病也라. 人參은 能養正破堅積하니 豈有發疝之理리오. 觀張仲景이 治腹中寒氣上衝하고 有頭足上下痛하여 不可觸近하며 嘔不能食者에 用大建中湯컨대 可知矣라. 又海藏王好古言 人參은 補陽泄陰해야 肺寒에 宜用이나 肺熱에 不宜用이라하고 節齋王綸이 因而和之해야 謂蔘芪는 能補肺火하니 陰虛火動과 失血諸病에 多服必死라하니 二家之說은 皆偏矣라 夫人參은 能補元陽 生陰血而瀉陰火라하니 東垣李氏之說也가 明矣라. 仲景張氏言 亡血氣虛者는 并加人參이라 하고 又言肺寒者는 去人參加乾薑해야 無令氣壅이라하고 丹溪朱氏亦言 虛火可補니 蔘芪之屬이요 實火可瀉니 芎藭之屬이라하니 二家不察三氏之精微하고 而謂人參補火라하니 謬哉라 夫火與元氣는 不兩立하니 元氣勝則邪火退라 人參이 既補元氣하고 而又補邪火면 是反覆之小人矣니 何以與甘草 芎藭로 爲之四君子邪아 雖然이나 三家之言은 不可盡廢也호대 惟其語有滯故로 守之者泥而執一하여 遂視人參如蛇蝎이던 則不可也라 凡人이 面白面黃 面靑靛悴者는 皆脾肺腎氣不足이니 可用也어니와 面赤面黑者는 氣壯神強하니 不可用也라 脈之浮而 扞濡하고 虛大遲緩無力하며 沈而遲澁하고 弱細結代無力者는 皆虛而不足이니 可用也어니와 若弦長 緊實하고 滑數有力者는 皆火鬱內實이니 不可用也라. 潔古謂喘嗽에 勿用者는 痰實氣壅之喘也오 若腎虛氣短喘促者는 必用也니라. 仲景謂肺寒而咳에 勿用者는 寒束熱邪해야 壅鬱在肺之咳也오 若自汗惡寒而咳者는 必用也니라. 東垣謂久病鬱熱在肺勿用者는 乃火鬱于內니 宜發不宜補也오 若肺虛火旺氣短

自汗者는 必用也니라. 丹溪言諸痛不可驟用者는 乃邪氣方銳하니 宜散不宜補也오. 若裏虛吐利와 及久病胃弱虛痛喜按者는 必用也니라. 節齋謂陰虛火旺勿用者는 乃血虛火旺能食하고 脈弦而數하야 涼之則傷胃하고 溫之則傷肺하니 不受補者也오. 若自汗氣短하고 肢寒脈虛者는 必用也니라. 如此詳審則人參之可用不可用이 思過半矣리라. [機曰] 節齋王綸之說은 本于海藏王好古로대 但綸은 又過于矯激이라. 丹溪言虛火可補니 須用參芪라 하고 又云陰虛潮熱과 喘嗽吐血과 盜汗等證에 四物加人參黃芩知母라하고 又云好色之人은 肺腎受傷이니 咳嗽不愈어든 瓊玉膏主之라 하고 又云肺腎虛極者는 獨參膏主之라하니 是知陰虛勞瘵之證에 未嘗不用人參也라. 節齋는 私淑丹溪者也로대 而乃相反如此하니 斯言一出하야 印定後人眼目하면 凡遇前證에 不問病之宜用不宜하고 輒舉以借口하야 致使良工掣肘하야 惟求免夫病家之怨하고 病家도 亦以此說로 橫之胸中하야 甘受苦寒하니 雖至上嘔下泄하야 去死不遠이라도 亦不悟也라. 古今治勞에 莫過于葛可久하니 其獨參湯, 保真湯에 何嘗廢人參而不用耶아 節齋之說은 誠未之深思也라. [楊起曰] 人參은 功載本草하니 人所共知로대 近因病者가 吝財薄醫하고 醫復算本惜費하야 不肯用參療病하야 以致輕者至重하고 重者至危라. 然有肺寒, 肺熱, 中滿, 血虛四證에 只宜散寒, 消熱, 消脹, 補營하고 不用人參이라하니 其說이 近是나 殊不知各加人參在內하야 護持元氣하면 力助群藥하야 其功更捷이라. 若曰氣無補法則謬矣라. 古方에 治肺寒以溫肺湯하고 肺熱以清肺湯하며 中滿以分消湯하고 血虛以養營湯하야 皆有人參在焉하니 所謂邪之所轉에 其氣必虛라 又曰養正하면 邪自除하고 陽旺則生陰血하니 貴在配合得宜라. 庸醫每謂人參은 不可輕用이라하니 誠哉庸也로다. 好生君子는 不可輕命薄醫오 醫亦不可計利不用이니 書此奉勉하야 幸勿曰迂라.

[譯]

[正誤] [雷敷] 가 이르기를 여름에 조금이라도 人參을 복용하면 心痰症(即 心悸)을 생기게 한다. [王好古] 가 이르기를 人參은 甘溫하여 肺의 陽을 補하고 肺의 陰을 泄하니 肺가 寒邪를 받았을 때엔 마땅히 이것으로 補해야 되지만 肺가 火邪를 받았을 때엔 도리어 肺를 損傷시키니 沙參으로 바꾸는 것이 마땅하다. [王綸] 이 이르기를 무릇 酒色을 過度히 하여 肺와 腎의 眞陰을 損傷시켜서 陰虛해져서 火가 動하여 勞嗽, 吐血, 咳血

등의 증상에 쓰지 말 것이니 대개 人參은 手太陰經에 들어가서 補火하기 때문에 肺가 火邪를 받은 者는 사용을 꺼린다. 만약 人參 黃芪의 甘溫한 藥을 잘못 복용하면 病이 날로 심해지고 過多하게 服用하면 治療를 못하고 죽게 된다. 대개 苦甘溫한 藥은 氣를 助長하고 氣는 陽에 屬하니 陽이 旺盛해지면 陰이 더욱 消耗되니 오직 苦甘寒한 藥으로 生血하고 降火하는 것이 마땅하다. 세상사람이 알지 못하고 흔히 人參과 黃芪를 복용하여 補를 하여 죽는 者가 많다. [李言聞] 이 이르기를 孫眞人이 이르기를 여름에 生脈散 腎瀝湯 三劑를 복용하면 百病이 생기지 않는다고 하고 李東垣도 또한 말하기를 生脈散 清暑益氣湯은 三伏때 瀉火하고 益金하는 聖藥이라 하되 雷敷는 반대로 心痰症을 생기게 한다고 하니 틀린 것이다. 痰은 배꼽 옆의 積氣이니 心病이 아니다. 人參은 能히 養正하여 단단한 積聚를 깨뜨리니 어찌 痰症을 생기게 하는 理致가 있으리오. 張仲景이 腹中에서 寒氣가 上衝하고 머리와 다리 上下가 아파서 접촉하거나 가까이 할 수 없으며 嘔吐가 나서 먹지 못하는 者를 치료할 때에 大建中湯을 쓴 것을 보건대 可히 알 수 있다. 또 海藏 王好古가 이르기를 人參은 補陽泄陰하여 肺가 寒할 때에 쓰는 것이 마땅하니 肺가 熱할 때에 쓰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하고 節齋 王綸이 거기에 附和하여 이르기를 人參과 黃芪는 能히 肺火를 補하니 陰虛火動과 失血한 모든 病에 많이 복용하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니 두사람(王好古와 王綸)의 주장은 모두 치우친 것이다. 대저 人參은 元陽을 補하여 陰血을 생하며 陰火를 瀉한다고 한 東垣 李氏의 說이 옳다. 張仲景이 이르기를 亡血하여 血虛하게 된 者는 아울러 人參을 加한다고 하고 또한 말하기를 肺寒者는 人參을 빼고 乾薑을 加하여 氣가 막히지 않도록 하라고 하였으며 丹溪 朱氏도 또한 이르기를 虛火는 補할 수 있으 니 人參, 黃芪의 종류요 實火는 瀉해야 하니 黃芩, 黃連의 종류라고 하였으니 두사람(王好古와 王綸)이 三氏(李東垣, 張仲景, 朱丹溪)의 精微한 내용을 살피지 못하고 人參이 補火한다고 하였으니 잘못 된 것이다. 대저 火와 元氣는 둘다 작용할 수 없으니 元氣가 이기면 邪火는 물러간다. 人參이 이미 元氣를 補하기도 하고 또 邪火를 補한다면 이는 言行을 자주 바꾸는 反覆無常한 小人輩니 어찌 甘草, 茯苓 白朮과 더불어 四君子라고 이룰 수 있는 가? 비록 그러하나 三家의 말은 다 廢棄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오직 그 말에 융통성이 없이 한 가지

만 짐작하여 드디어 人參 보기를 독사와 전갈처럼 한다면 이것은 不可하다. 무릇 사람이 面白하고 面黃하고 面靑하고 黃黑하면서 초췌한 者(鰵는 검은 색 바탕에 누런색을 띤 색갈이다)는 모두 脾 肺 腎의 氣가 不足한 것이니 쓸 수 있지만 面赤 面黑한 者는 氣와 神 이 強壯하니 써서는 안된다. 脈이 浮, 芤, 濡하고 虛, 大, 遲, 緩, 無力하며 沈, 遲, 澁하고 弱, 細, 結, 代, 無力한 者는 모두 虛하고 不足한 것이니 쓸 수 있지만 만약 弦, 長, 緊, 實하고 滑, 數, 有力한 者는 모두 火가 鬱滯되어 內實한 것이니 쓸 수가 없다. 張潔古가 이르기를 喘息과 기침에 쓰지 말라는 것은 痰이 實하여 氣가 壅滯된 喘息이오, 만약 腎虛하여 호흡이 짧고 급한 者는 반드시 써야만 한다. 仲景이 이르기를 肺寒하여 기침하는 데에 쓰지 말라는 것은 寒이 熱邪를 묶어 막히고 鬱滯된 것이 肺에 있는 기침이요, 만약 自汗, 惡寒하면서 기침하는 者는 반드시 써야만 한다. 東垣이 이르기를 久病에 熱이 肺에 鬱滯된 것에 쓰지 말라는 것은 火가 안에 鬱滯된 것이니 發散하는 것이 마땅하지 補하는 것은 마땅치 않고 만약 肺虛하여 火가 旺盛하고 호흡이 짧고 自汗하는 者는 반드시 써야만 한다. 丹溪가 말하기를 모든 痛症에 급히 쓰는 것이 不可하다고 한 것은 邪氣가 巴야흐로 날카로우니 消散하는 것이 마땅하지 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 것이요, 만약 裏虛 吐利와 久病에 胃弱하여 虛痛으로 누를 때 편안한 것은 반드시 써야만 한다. 節齋가 이르기를 陰虛火旺에 쓰지 말라는 것은 血虛火旺하고 能食하며 脈이 弦數하여 찬 藥을 쓰면 胃가 傷하고 溫藥을 쓰면 肺가 傷하니 補를 받지 못하는 것이요, 만약 自汗, 氣短하고 四肢가 차고 脈이 虛한 者는 반드시 써야 한다. 이와 같이 상세히 살핀다면 人參을 쓸 수 있고 써서는 안되는 경우에 대해 생각하여 깨달은 것이 많을 것이다. [汪機가 이르기를] 節齋 王綸의 說은 海藏 王好古에 뿌리했으되 다만 王綸은 지나치게 과격했을 따름이다. 丹溪가 이르기를 虛火는 補할 수 있으니 모름지기 人參, 黃芪를 쓸 것이라 하였고, 또 이르기를 陰虛潮熱과 喘嗽吐血과 盜汗 等證에 四物湯에 人參 黃芪 知母를 加한다고 하고 또 이르기를 好色之人은 肺와 腎이 損傷을 받으니 기침이 낫지 않거든 瓊玉膏를 쓰라고 하고, 또한 이르기를 肺와 腎이 몹시 虛한 者는 獨參膏로 치료하라 하니 이것은 陰虛勞瘵의 證에 人參을 쓴 경우이다. 節齋는 丹溪를 私淑한 者인데 도리어 이와 같이 相反되니 말이라는 것이 한번

나와 後人의 눈에 박히게 되면 앞의 症狀를 만날 때마다 病에 쓰는 것이 마땅한지 마땅하지 않은지를 따지지 않고 문득 들어 입에 올려서 良工으로 하여금 장애가 되게 하여 오직 환자에게 원망을 벗어나는 것만 추구하게 하고 환자도 또한 이 學說로 가슴 속에 담아 苦寒한 것을 즐겁게 받아 들이니, 비록 嘔吐 泄瀉하여 죽는 것이 멀지 않더라도 또한 깨닫지 못한다. 古속에 勞病을 치료할 때에 葛可久보다 뛰어난 자가 없으니 그의 獨參湯, 保真湯에 어찌 人參을 쓰지 않았으리오. 節齋의 說은 진실로 깊이 생각하지 못한 것이다. [楊起]가 이르기를 人參은 그 功效가 本草書에 실려 있으니 사람마다 다알되 근래에 환자가 재물을 아끼고 醫師를 輕視하며 醫師도 본전을 생각해서 비용을 아껴서 人參을 써서 病을 治療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아 가벼운 병이 무거워지고 무거운 병이 위태롭게 된다. 그러나 肺寒, 肺熱, 中滿, 血虛의 四證에 단지 散寒, 消熱, 消脹, 補營만 하면 되고 人參을 쓰지 않는 것이 옳다고 하니 그 說이 옳은 것 같으나 각각 人參을 속에다 加하여 元氣를 보호하고 도와주면 그 힘이 群藥을 도와 그 功效가 더욱 빠르다는 것을 너무나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氣는 補法이 없다고 말한다면 잘못된 것이다. 古方에 肺寒을 치료할 때에 溫肺湯을 쓰고 肺熱을 치료할 때에 清肺湯을 쓰며 中滿을 치료할 때에 分消湯을 쓰고 血虛를 치료할 때에 養營湯을 써서 모두 人參이 그 안에 있으니 이른바 邪氣가 모이는 곳에 그 正氣가 반드시 虛한 것이다. 또 이르기를 正氣를 養하면 邪氣가 저절로 除去되고 陽이 旺盛하면 陰血을 생하니 貴히 여기는 것은 配合 藥物이 마땅한가에 달려 있다. 庸醫는 매양 人參은 함부로 써서는 안된다 라고 하니 정말로 庸劣하다. 生命을 아끼는 君子는 목숨을 가벼히 여겨 醫師를 輕視하지 말 것이요, 醫師도 利益을 도모하여 人參을 안쓰지 말 것이니 여기에 쓴 것을 받들고 힘써서 迂闊(사정에 어두움)하다고 이르지 말기를 바라노라.

【附方】 舊七新六十이라

① 人參膏. 用人參十兩細切하여 以活水二十盞浸透하고 入銀石器內하여 桑柴火로 緩緩煎取十盞하여 濾汁하고 再以水十盞으로 煎取五盞하여 與前汁合煎成膏하여 瓶收라가 隨病作湯使니라. 丹溪云 多欲之人은 腎氣衰憊하며 咳嗽不止하니 用生薑橘皮煎湯에 化膏服之니라 浦江鄭兄이 五月患痢한대 又

犯房室하여 忽發昏運하여 不知人事하며 手撒目暗하고 自汗如雨하며 喉中痰鳴이 如曳鋸聲하며 小便遺失하며 脈大無倫하니 此陰虧陽絕之證也라 予令急煎大料人參膏하고 仍與灸氣海十八壯하니 右手能動하고 再三壯하니 唇口微動하니라 遂與膏服一盞하고 半夜 후에 服三盞하니 眼能動하고 盡三斤하니 方能言而索粥하며 盡五斤而痢止오 至十斤而全安하니 若作風治則誤矣라 一人이 背疽로 服內托十宣藥이 已多로대 膿出作嘔하며 發熱하며 六脈沈數有力하니 此潰瘍所忌也라 遂與大料人參膏호대 入竹瀝飲之하니 參盡一十六斤하고 竹伐百餘竿而安하니라 后經旬餘에 值大風拔木한대 瘡起有膿하고 中有紅線一道가 過肩胛하여 抵右肋이어늘 予曰急作參膏하고 以芎歸橘皮로 作湯하여 入竹瀝薑汁飲之하라 한대 盡三斤而瘡潰하고 調理乃安하니라 若癰疽潰 후에 氣血俱虛하며 嘔逆不食하며 辨證不一者는 以參耆歸朮로 等分하여 煎膏服之하면 最妙니라

【譯】

【附方】 과거에 있던 것이 7개이고 새로 추가한 것이 60개이다.

① 人參膏. 人參 10량을 가늘게 썰어 흐르는 물 20잔에 담가 불리고 銀器나 石器안에 넣어 뽕나무 불로 서서히 달여 10잔을 취하여 汁을 거르고 다시 물 10잔으로 5잔까지 달여 앞서 달여놓았던 즙과 합하여 달여 膏를 만들어 병속에 두었다가 병에 따라 湯을 조제하여 사용할 지니라. 朱丹溪가 이르기를 욱심이 많아 犯房을 자주하는 사람은 腎氣가 쇠약하며 기침이 그치지 아니하니 生薑 橘皮 달인 물에 人參膏를 녹여 服用할 지니라. 浦江(丹溪의 고향인 浙江省 義烏縣 옆에 있는 縣名) 鄭兄이 5개월간 痢疾병을 앓고 또 房室을 犯한대 갑자기 어지러움이 발하여 人事不省이 되고 손이 풀리고 앞이 안보이며 땀이 비오듯하며 목구멍 속에서 담이 끓는 소리가 툭질하는 소리같으며 小便을 가리지 못하며 脈이 大하고 규칙적이지 못하니 이것은 陰이 고갈되어 陽이 끊어지려는 症狀이었다. 내가 급히 大料人參膏를 달이게 하고 인하여 氣海穴에 18장의 뜸을 뜨니 오른손이 움직이고 다시 3장을 뜨니 입술과 입이 가볍게 움직이게 되니라. 드디어 人參膏를 1잔 복용하고 한밤중이 지난 뒤 3잔을 복용하니 눈이 움직이고 3斤을 服用하니 비로소 말을 하고 죽을 찾으며 5근을 다 복용하니 痢疾이 그치고 10斤에 이르니 완전히 나았으니 만일 中風으로 여겨 治療했다면 잘못된 것이다. 한

사람이 등의 腫氣로 內托十宣藥을 이미 많이 服用했으되 고름이 나오고 嘔吐가 나며 發熱이 되고 左右 寸關尺의 六脈이 沈數有力하니 이런 症狀은 潰瘍에서 꺼리는 바이다. 이에 大料人參膏를 竹瀝에 넣어 마시니 人參은 16근 대나무는 백여그루를 베어 服用하고 나니 편안해지니라. 뒤에 10여일이 지난 후에 大風이 나무를 뽑아내는 氣候變化를 맞이 하였는데 瘡口에서 고름이 나오고 그 가운데 붉은 선 하나가 어깨를 지나 오른쪽 옆구리에 이르거늘 내가 이르기를 급히 人參膏를 만들고 川芎, 當歸, 橘皮를 煎湯하여 달이고 竹瀝과 生薑汁을 넣어 마시라 한대 3斤을 복용하니 瘡이 潰破되고 그 후 調理를 하니 편안해지니라. 癰疽에서 고름이 터진 뒤에는 氣血이 모두 虛하며 구역질이 나서 먹지를 못하며 辨證이 한두가지가 아닌 경우에는 人參, 黃芪, 當歸, 白朮을 等分하여 달여 膏를 만들어 服用하면 가장 효과가 좋다.

② 治中湯 [頌曰] 張仲景이 治胸痺에 心中痞堅하며 留氣結胸하며 胸滿하며 脇下逆氣搶心이어든 治中湯으로 主之하라하니 卽理中湯이라. 人參, 朮, 乾薑, 甘草各三兩, 四味를 以水八升으로 煮三升하여 每服一升호대 日三服하며 隨證加減이니라. 此方은 自晉宋以後至唐名醫가 治心腹病者에 無不用之하니 或作湯, 或蜜丸, 或爲散이나 皆有奇效하니라 胡洽居士治霍亂에 謂之溫中湯이라하니라. 陶隱居百一方云 霍亂餘藥은 乃或難求라도 而治中方 四順湯, 厚朴湯은 不可暫缺이니 常須預合自隨也니라. 唐石泉公王方慶云 數方은 不惟霍亂可醫오 諸病皆療也니라 四順湯은 用人參, 甘草, 乾薑, 附子炮各二兩을 水六升하여 煎以升半하고 分四服이니라

③ 四君子湯 治脾胃氣虛와 不思飲食과 諸病氣虛者는 以此爲主니라. 人參一錢, 白朮二錢, 白茯苓一錢, 炙甘草五分, 薑三片, 棗一枚를 水二鍾에 煎一鍾하여 食前湯服호대 隨證加減이니라. (和劑局方)

【譯】

② 治中湯 [蘇頌]이 이르기를 張仲景이 胸痺를 治療할 때 가슴이 답답하고 단단하며 기가 머물러 結胸증이 있으며 가슴이 그득하며 옆구리에서 氣가 逆上하여 가슴까지 침입해오면 治中湯으로 治療하라하니 곧 理中湯이다. 人參, 白朮, 乾薑, 甘草 각 3兩 4味를 물 八升으로 3升이 될 때까지 달여 매번 一升씩 복용하되 하루에 3번 복용하며 증상에 따라 加減할 것이다. 이 處方은 晉나라 宋나라(劉宋)로부터 이후 唐까지의 名醫가 가슴과 배

의 病을 治療하는 자는 쓰지 아니함이 없으니 湯으로도 하고 蜜丸으로도 하고 散劑로 쓰더라도 모두 卓效가 있다. 胡洽居士가 霍亂을 治療할 때 溫中湯이라 이름하니라. 陶隱居가 지은 百一方에 이 르기를 霍亂을 治療하는 나머지 藥은 혹 求하기 어려울지라도 治中方, 四順湯, 厚朴湯은 잠시라도 빠뜨릴 수 없으니 항상 반드시 미리 준비했다가 뜻대로 사용할 것이다. 唐나라 石泉公 王方慶¹¹⁾이 이르되 이 몇가지 處方은 霍亂을 治療할 뿐만 아니라 다른 病도 다 治療할 수 있다. 四順湯은 人參, 甘草, 乾薑, 炮附子 各各 2兩을 물 6升으로 2升半이 되도록 달여 네 번에 나누어 服用할지니라.

③ 四君子湯 脾胃의 氣虛와 飲食 생각이 없는 것과 모든 氣虛한 病을 治療하는 자는 이것으로 爲主할 것이다. 人參 1錢, 白朮 2錢, 白茯苓 1錢, 炙甘草 5分, 生薑 세쪽, 大棗 한 개를 물 2鍾(용량의 단위)으로 一鍾이 되도록 달여 食事前에 따뜻하게 복용하되 증상에 따라 약을 가감해서 사용할 것이다. (和劑局方)

④ 開胃化痰하며 不思飲食에 不拘大人小兒하고 人參焙二兩, 半夏薑汁浸焙五錢을 爲末하고 飛羅面作糊하여 丸綠豆大하여 食後薑湯下三, 五十九호대 日三服이니라. 聖惠方에 加陳橘皮五錢이라. (經驗後方)

⑤ 胃寒氣滿하여 不能傳化하며 易飢不能食에 人參末二錢, 生附子末半錢, 生薑二錢을 水七合에 煎二合하고 鷄子淸一枚를 打轉空心服之니라. (聖濟總錄)

⑥ 脾胃虛弱하고 不思飲食에 生薑半斤을 取汁하고 白蜜十兩, 人參末四兩을 銀鍋煎成膏하여 每米飲으로 調服一匙라. (普濟方)

⑦ 胃虛惡心하며 或嘔吐有痰에 人參一兩 水二盞을 煎一盞하여 入竹瀝一杯와 薑汁三匙하여 食遠溫服하고 以知爲度니 老人尤宜니라. (簡便方)

⑧ 胃寒嘔惡하며 不能腐熟水穀하며 食即嘔吐에 人參, 丁香, 藿香各二錢半, 橘皮五錢, 生薑三片, 水二盞을 煎一盞하여 溫服이니라. (拔萃方)

⑨ 反胃嘔吐하며 飲食入口即吐하며 困弱無力하여 垂死者는 上黨人參三大兩을 拍破하고 水一大升을 煮取四合하여 熱服호대 日再니라. 兼以人參汁에 入粟米, 鷄子白 薤白하여 煮粥與啖이라. 李直方司

勛이 于漢南患此러니 兩月餘에 諸方不瘥라. 遂與此方하니 當時便定하고 后十餘日에 遂入京師하니라. 絳이 每與名醫論此藥에 難可爲壽也라하니라. (李絳兵部手集方)

[譯]

④ 胃를 열고 痰을 삭이며 飲食 생각이 없을 때 大人과 어린아이에 拘碍됨이 없이 人參 말린 것 2兩, 半夏를 生薑汁에 담갔다가 말린 것 5錢을 가루로 만들고 밀가루로 풀을 쑤어 綠豆 크기의 丸藥을 만들어 食後에 生薑 달인 물로 30내지 50알을 服用하되 하루에 세 번 먹는다. 聖惠方에는 陳橘皮 5錢이 더해져 있다. (經驗後方)

⑤ 胃가 차며 氣가 그득하여 消化가 안되며 쉽게 배는 고프나 먹을 수 없을 때 人參가루 2錢, 生附자가루 半錢, 生薑 2錢을 물 七合으로 二合이 되도록 달여 鷄卵 흰자위 1개를 깨뜨려 넣고 휘저어 빈 속에 服用한다. (聖濟總錄)

⑥ 脾胃가 虛弱하고 飲食 생각이 없을 때 生薑 半斤으로 汁을 취하고 흰 꿀 10兩, 人參가루 4兩을 銀으로 만든 그릇에 달여 膏藥을 만들어 매번 米飲으로 한 숟가락씩 調服한다. (普濟方)

⑦ 胃가 虛弱해 惡心하며 더러 嘔吐할 때 痰이 섞여 나오면 人參 一兩, 물 두잔을 한 잔으로 달여 竹瀝 한 잔과 生薑汁 세 숟가락을 넣어 食間에 따뜻하게 服用하고 效果를 느끼는 것으로 限度를 삼을 것이니 老人에게 특히 좋다. (簡便方)

⑧ 胃가 차고 惡心, 嘔吐하며 飲食을 消化시키지 못하며 먹으면 嘔吐할 때에 人參, 丁香, 藿香, 各 2錢半, 橘皮 5錢, 生薑 세쪽, 물 두잔을 한잔으로 달여 따뜻하게 복용한다. (拔萃方)

⑨ 胃에서 飲食이 올라와 嘔吐하며 飲食이 입에 들어가기만 하면 吐하며 疲困 無力하여 죽은 듯이 늘어지는 자는 上黨人參 3兩을 쪼개고 물 한 되에 달여 4合을 취하여 뜨겁게 服用하되 하루에 두 번 服用한다. 아울러 人參汁에 菴蓂, 鷄卵 흰자위, 薤白을 넣어 죽을 쑤어 먹게 한다. 李直方司勳이 漢南에서 이 病을 앓았는데 2개월에 걸쳐 모든 處方이 效果가 없었다. 드디어 이 處方을 주니 즉시에 安定이 되고 후 10여일에 드디어 京師로 들어가게 되었다. 李絳이 姜名醫와 더불어 이 藥을 論할 때에 짝이 될 만한 것을 찾기 어렵다고 하니라. (李絳兵部手集方)

⑩ 食入則吐에 人參半夏湯이니 用人參一兩, 半夏一兩五錢, 生薑十片, 水一斗하여 以杓揚二百四十

11) 王方慶은 唐代 太原人. 博學多才했고 벼슬은 麟台令에까지 올랐다. 經方을 좋아했고 藥性에 精通했다.

遍하여 取三升하고 入白蜜三合하여 煮一升半하여 分服이니라. (張仲景金匱方)

⑩ 霍亂嘔惡에 人參二兩, 水一盞半을 煎汁一盞하고 入鷄子白一枚하여 再煎溫服이니라. 一加丁香이라. (衛生家寶方)

⑪ 霍亂煩悶에 人參五錢, 桂心半錢을 水二盞에 煎服이니라. (聖惠方)

⑫ 霍亂吐瀉하며 煩躁不止에 人參二兩, 橘皮三兩, 生薑一兩을 水六升으로 煮三升하여 分三服이니라. (聖濟總錄)

⑬ 妊娠吐水하며 酸心腹痛하며 不能飲食에 人參 乾薑炮를 等分爲末하고 以生地黄汁으로 和丸梧子大하여 每服五十丸호대 米湯下니라. (和劑局方)

⑭ 陽虛氣喘하며 自汗盜汗하며 氣短頭暈에 人參五錢, 熟附子一兩을 分作四帖하고 每帖에 以生薑十片 流水二盞으로 煎一盞하여 食遠溫服이니라. (濟生方)

喘急欲絕하며 上氣鳴息者는 人參末을 湯服方寸匕호대 日五六服하면 效니라. (肘後方)

產後發喘은 乃血入肺竅니 危症也라. 人參末一兩, 蘇木二兩을 水二碗으로 煮汁一碗하여 調參末服하면 神效니라. (聖惠方)

⑮ 產後血運에 人參一兩, 紫蘇半兩을 以童尿, 酒, 水三合하여 煎服이니라. (醫方撮要)

⑯ 產後不語에 人參, 石菖蒲, 石蓮肉을 等分하여 每服五錢호대 水煎服이니라. (婦人良方)

⑰ 產後諸虛와 發熱自汗에 人參, 當歸를 等分爲末하고 用猪腰子一個호대 去膜切小片하여 以水三升, 糯米半合, 葱白二莖으로 煮米熟하고 取汁一盞하여 入藥煎至八分하여 食前溫服이니라. (永類方)

[譯]

⑩ 飲食이 들어가자 마자 곧 吐하면 人參半夏湯을 쓰니 人參 1兩, 半夏 1兩 5錢, 生薑 열쪽, 물 한 말을 써서 큰 숟가락으로 240번을 휘저어 3승을 취하고 圓알 3승을 넣어 한 되 반이 되도록 달여 나누어 복용한다. (張仲景金匱方)

⑪ 霍亂으로 嘔吐할 때 人參 2兩, 물 한잔반을 달여 한 잔이 되게 하고 계란 흰자위 한 개를 넣어 다시 달여 따뜻하게 하여 복용한다. 한곳에는 丁香을 가한 곳이 있다. (衛生家寶方).

⑫ 霍亂으로 煩悶할 때 人參 5錢, 桂心 半錢을 물 두잔에 달여 마신다. (聖惠方)

⑬ 霍亂으로 吐瀉하며 煩躁가 그치지 않을때 人參 2兩, 橘皮 3兩, 生薑 1兩을 물 6升으로 3升이

되도록 달여 3회에 나누어 마신다. (聖濟總錄)

⑭ 妊娠에 물을 吐하며 가슴이 아프고 배가 아프며 飲食을 먹지 못할 때 人參, 炮乾薑을 等分하여 가루로 만들고 生地黄汁으로 섞어 오동나무 열매 크기로 丸을 만들어 50丸씩 服用하되 米飲으로 마신다. (和劑局方)

⑮ 陽虛로 氣喘하며 自汗 盜汗이 나며 呼吸이 짧고 머리가 흔들릴 때 人參 5錢, 익힌 附子 1兩을 네 첩으로 나누고 매첩마다 生薑 열쪽과 흐르는 물 두잔으로 한 잔이 되도록 달여 食間에 따뜻하게 마신다.

⑯ 呼吸이 급해 끊어질 듯하며 氣가 올라하고 呼吸할 때 소리가 나는 자는 人參가루를 끓인 물로 한 숟가락 씩 服用하되 하루에 5-6차례 하면 효과가 있다. (肘後方)

⑰ 產後에 나타나는 喘息은 피가 肺의 구멍으로 들어간 것이니 위급한 증상이다. 人參가루 1兩, 蘇木 2兩을 물 두 대접으로 한 대접이 되도록 달여 人參 가루를 타서 服用하면 神效가 있다. (聖惠方)

⑱ 產後에 피가 부족하여 어지러울 때 人參 1兩, 紫蘇 半兩을 어린아이의 오줌, 술, 물과 서로 합해서 달여 마신다. (醫方撮要)

⑲ 產後에 말을 못할 때에는 人參, 石菖蒲, 石蓮肉을 等分하여 5錢씩 服用하되 물에 달여 마신다. (婦人良方)

⑳ 產後의 모든 虛弱症과 熱이 나고 땀이 날 때 人參, 當歸를 等分하여 粉末로 만들고 돼지 콩팥 한 개를 껍질의 막은 버리고 잘게 썰어 물 3升, 참쌀 半승, 파뿌리 2개로 쌀이 익을 때까지 달이고 汁 한 잔을 취하여 藥을 넣고 8분이 되도록 달여 밥먹기 전에 따뜻하게 服用한다. (永類方)

㉑ 產後秘塞하며 出血多에 以人參, 麻子仁, 枳殼 麩炒로 爲末하여 煉蜜丸梧子大하여 每服五十丸호대 米飲下니라. (濟生方)

㉒ 橫生倒産에 人參末 乳香末各一錢 丹砂末五분을 研勻하고 鷄子白一枚에 入生薑自然汁三匙하여 攪勻冷服하면 卽母子俱安하고 神效하니 此施漢卿方也니라. (婦人良方)

㉓ 開心益智에 人參末一兩, 煉成猿猪肥肪十兩을 以淳酒和勻하여 每服一杯호대 日再服이니라. 服至百日하면 耳目聰明하고 骨髓充盈하며 肌膚潤澤하고 日記千言하며 兼去風熱痰病이니라. (千金方)

㉔ 聞雷即昏이라. 一小兒가 七歲에 聞雷即昏倒하여 不知人事하니 此氣怯也라. 以人參 當歸 麥門

冬各二兩 五味子五錢을 水一斗로 煎汁五升하고 再以水五升으로 煎滓取汁二升하야 合煎成膏하고 每服三匙호대 白湯化下하야 服盡一斤이러니 自後聞雷自若矣러라. (楊起簡便方)

㉔ 忽喘悶絕 方은 見大黃下하니라.

[譯]

㉑ 産後에 便秘가 있고 出血이 많으면 人參, 麻子仁 麩炒한 枳殼을 粉末하여 粥을 끓여 오동나무 열매크기로 丸을 만들어 50丸씩 복용하되 米飲으로 먹는다. (濟生方)

㉒ 橫位 또는 足位로 이상 分娩時에는 人參분말 乳香분말 각 1錢, 丹砂분말 5分을 갈아서 고르게 섞고 鷄卵 노른자위 1개에 生薑汁 세숫가락을 넣어 고르게 섞어 차게 服用하면 모자가 모두 편안하고 神效하니 이것은 施漢卿의 處方이다. (婦人良方)

㉓ 마음을 열어 知慧를 더할 때는 人參분말 1兩, 숯돼지의 비계를 녹인 것 10兩을 진한 술에 고르게 섞어 매번 한 잔씩 마시되 하루에 두 번 服用한다. 百日間 먹으면 耳目이 聰明해지고 骨髓가 충실해지며 皮膚가 潤澤해지고 하루에 천마디 말을 기억하며 아울러 風病, 熱病, 痰病을 물러가게 한다. (千金方)

㉔ 천둥소리를 들으면 氣絶한다. 한 어린아이가 7살에 천둥소리를 듣고 기절하야 人事不省이 되었는데 이것은 氣가 너무 허약해서 그런 것이다. 人參, 當歸, 麥門冬 各 2兩, 五味子 5錢을 물 한말로 5升이 되도록 달이고 다시 물 5升으로 나머지 藥材를 달여 2升을 취하여 앞의 5升과 합하여 달여서 膏藥을 만들고, 매번 세 숫가락 씹을 복용하되 끓은 물에 녹여 服用하여 한 斤을 다 먹었더니 이 뒤로부터 우리 소리를 들어도 평소와 같게 되었다. (楊起簡便方)

㉕ 갑자기 呼吸이 가쁘고 가슴이 답답하고 끊어지는 듯한 症狀을 治療하는 處方은 大黃條의 아래에 있다.

㉖ 離魂異疾이라. 有人이 臥則覺身外有身하야 一樣無別이나 但不語라. 蓋人臥則魂歸於肝이로대 此由肝虛邪襲하야 魂不歸舍니 病名曰離魂이라. 用人參, 龍齒, 赤茯苓 各一錢하야 水一盞으로 煎半盞하고 調飛過朱砂末一錢하야 睡時服호대 一夜一服이러니 三夜後에 眞者氣爽하고 假者即化矣러라. (夏子益怪證奇疾方)

㉗ 怔忡自汗은 心氣不足也라. 人參半兩 當歸半

兩에 用猿猪腰子二個하야 以水二碗으로 煮至一碗半이어든 取腰子細切하고 人參 當歸는 同煎至八分이어든 空心吃腰子호대 以汁送下라. 其滓는 焙乾爲末하야 以山藥末로 作糊丸綠豆大하고 每服五十丸호대 食遠棗湯下하면 不過兩服即愈하니 此昆山神濟大師方也라. 一加乳香二錢이라. (王彥百一選方)

㉘ 心下結氣라. 凡心下硬이 按之則無나 常覺膨滿하며 多食則吐하며 氣引前後하야 噫呃不除는 由思慮過多하야 氣不以時而行하야 則結滯니 謂之結氣라. 人參一兩 橘皮去白四兩을 爲末하야 煉蜜丸梧子大하야 每米飲下五六十九丸이니라. (聖惠方)

㉙ 房后困倦에 人參七錢, 陳皮一錢을 水一盞半으로 煎八分하야 食前溫服호대 日再服이니 千金不傳이니라. (趙永庵方)

㉚ 虛勞發熱에 愚魯湯이니 用上黨人參 銀州柴胡 各三錢 大棗一枚 生薑三片하야 水一鍾半으로 煎七分하야 食遠溫服호대 日再服하고 以愈爲度니라. (奇效良方)

[譯]

㉑ 魂이 떠나는 怪異한 疾病이다. 어떤 사람이 잠을 자면 몸 밖에 몸이 있어 모양이 똑같고 區別이 없으나 다만 말을 하지 못하였다. 대개 사람이 잠을 자면 魂이 肝으로 들어가나 이것은 肝이 虛弱한데 邪氣가 侵襲하여 魂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것이니 病名은 "離魂"이라 한다. 人參, 龍齒, 赤茯苓 各 1錢을 물 한잔으로 반잔이 되도록 달이고 水飛한 朱砂가루 1錢을 섞어서 잠잘 때 먹되 하루 저녁에 한번씩 먹었더니 3일 후에 본 몸뚱아리는 氣運이 상쾌하고 가짜는 없어져 버렸다. (夏子益怪證奇疾方)

㉒ 가슴이 두근거리고 땀이 나는 것은 心氣가 不足한 것이다. 人參 半兩, 當歸 半兩에 수돼지 콩팥 2개를 물 두 대접으로 달여 한 그릇 반이 되거든 콩팥을 꺼내 가늘게 썰고 人參, 當歸는 함께 달여 8분이 되거든 빈속에 콩팥을 먹되 汁으로 먹는다. 그 나머지 藥材 찌꺼기는 말려 가루로 만들어 山藥가루로 糊丸으로 녹두크기로 만들어 50알씩 먹되 食間에 大棗 달인 물로 먹으면 불과 2회를 복용하면 나으니 이것은 昆山的 神劑大師의 處方이다. 한곳에는 乳香 2錢이 더해져 있다. (王彥百一選方)

㉓ 心下에 氣가 結滯된 것이다. 무릇 가슴아래가 딱딱한 것이 누르면 感覺이 없으나 항상 팽만감을 느끼며 많이 먹으면 吐하고 氣가 앞뒤로 끌

어 당겨 트림이 없어지지 않는 症狀은 생각이 너무 많아 氣가 잘 行하여지지 아니하여 結滯가 된 것이니 結氣라고 부른다. 人參 1兩, 橘皮(흰 것은 제거) 4兩을 粉末로 만들어 橘을 끓여 오동나무 열매크기로 丸을 만들어 米飲으로 50-60알씩 먹는다. (聖惠方)

㉘ 房事後에 피로할 때 人參 7錢, 陳皮 1錢을 물 한 잔 반으로 8分이 되도록 달여 食前에 따뜻하게 服用하되 하루에 2번 服用할지니 千金을 주어도 傳해주지 못할 秘方이니라. (趙永庵方)

㉙ 疲勞하고 熱이 날 때 愚魯湯을 쓸 것이니 上黨人參 銀州¹²⁾0產 柴胡 各 3錢 大棗 1개, 生薑 세쪽을 써서 물 1 鍾半으로 七分이 되도록 달여 食間에 따뜻하게 服用하되 하루에 두 번 服用하고 낫는 것을 한도로 삼는다. (奇效良方).

㉚ 肺熱聲啞에 人參二兩 訶子一兩을 爲末하야 嚙咽이니라 (丹溪摘玄)

㉛ 肺虛久咳에 人參末二兩 鹿角膠炙研一兩을 每服三錢호대 用薄荷鼓湯一盞이니 葱少許를 入銚子煎一二沸하고 傾入蓋內니라 遇咳時에 溫呷三五口하면 甚佳니라 (食療本草)

㉜ 止咳化痰에 人參末一兩 明礬二兩을 以醋二升으로 熬礬成膏하고 人參末하야 煉蜜和收니라 每以豌豆大一丸으로 放舌下하면 其嗽卽止하고 痰自消니라 (簡便方)

㉝ 小兒喘咳하야 發熱自汗吐紅하야 脈虛無力者는 人參 天花粉을 等分하야 每服半錢호대 蜜水調下하고 以瘥爲度니라 (經濟方)

㉞ 喘咳嗽血하야 咳喘上氣 喘急하야 咳血吐血하야 脈無力者는 人參末을 每服三錢호대 鷄子清으로 調之하야 五更初에 服便睡호대 去枕仰臥하면 只一服愈니라 年深者는 再服이오 咯血者는 服盡一兩하면 甚好니라 一方에 以烏鷄子로 水磨千遍하야 自然化作水하야 調藥하면 尤妙라하니라 忌醋鹹腥醬과 麪鮓醉飽요 將息乃佳니라 (沈存中靈苑方)

[譯]

㉟ 肺熱로 목소리가 안 나올 때에 人參 二兩 訶子 一兩을 분말하여 입에 머금어서 삼킨다. (丹溪摘玄¹³⁾)

㊱ 肺가 虛弱하여 오래된 기침에 人參가루 二兩, 鹿角膠를 炙하여 같은 것 一兩을 매번 三錢씩 복용하되 薄荷 豆豉 달인 물 一盞으로 먹을 것이니 이 때에 파 약간을 냄비에 넣어 한두번 끓인 후에 薑속에 부어 넣을 것이니라. 기침을 할 때에는 따뜻하게 3~5번 마시면 아주 좋다. (食療本草)

㊲ 기침을 그치고 痰을 삭히는데 人參가루 一兩 明礬 二兩을 식초 二升으로 明礬을 달여 膏를 만들고 人參 가루를 넣어 꿀을 끓여 반죽을 한다. 매번 완두콩 크기의 丸藥을 혀 아래에 놓으면 기침이 즉시 그치고 痰이 저절로 삭는다. (簡便方)

㊳ 어린아이가 喘息과 기침을 하며 發熱하고 自汗하야 붉은 것을 토하고 脈이 虛하고 無力한 者는 人參 天花粉을 等分하야 매번 半錢씩 服用하되 꿀물로 먹고, 나오면 그친다. (經濟方)

㊴ 喘息 기침을 하고 기침할 때에 피가 나오며, 천식 기침할 때 上氣가 되고 喘息이 심하야 咳血과 吐血이 있고 脈이 無力한 者는 人參가루를 매번 三錢씩 먹되 계란 흰자위에 섞어서 五更(새벽 3시~5시)初에 먹고 잠자되 베개를 버리고 하늘을 향해 누워 자면 한번만 먹어도 낫는다. 병이 오래된 者는 한번 더 복용하고 咯血하는 者는 一兩을 다 복용하면 아주 좋다. 한 處方에 검은 닭의 알을 물로 천번을 갈아서 자연스럽게 변화되어 물이 되게 하여 藥과 섞으면 더욱 神效하다. 식초, 짠 것, 비린 것, 간장, 국수, 젓갈, 술취하고 과식하는 것을 꺼리고 요양을 하면 좋다. (沈存中靈苑方)

㊵ 咳嗽吐血에 人參 黃耆 飛羅麪 各一兩 百合五錢을 爲末하야 水丸梧子大하야 每服五十九호대 食前茅根湯下니라 ○ 朱氏集驗方; 用人參乳香辰砂하야 等分爲末하고 烏梅肉으로 和丸彈子大하야 每白湯化下一丸호대 日一服이니라

㊶ 虛勞吐血에 甚者는 先以十灰散止之하고 其人必困倦하면 法當補陽生陰이니 獨參湯主之니라 好人參一兩 肥棗五枚를 水二鍾으로 煎一鍾服이니 熟睡一覺하면 卽減五六하고 繼服調理藥이니라 (葛可久十藥神書)

㊷ 吐血下血이 因七情所感과 酒色內傷하야 氣血妄行하야 口鼻俱出할새 心肺脈破하야 血如湧泉하면 須臾不救니라 用人參焙 側柏葉蒸焙 荊芥穗燒存性 各五錢 爲末하야 用二錢入飛羅麪二錢하야 以新汲水로 調如稀糊服호대 少頃再啜이니 一服立止니라

書로 되어 있으나 現在 傳하지 않는다.

12) 지금의 陝西城 米脂, 佳縣 等地가 해당된다.

13) 丹溪摘玄은 醫藏目錄의 記載에 의하면 이 책은 모두 30卷으로 되어 으며 丹溪의 著

라 (華陀中藏經)

③⑧ 衄血不止에 人參 柳枝를 (寒食采者) 等分爲末하야 每服一錢호대 東流水服이니 日三服이니라 無柳枝면 用蓮子心이니라 (聖濟總錄)

④① 齒縫出血에 人參 赤茯苓 麥門冬 各二錢과 水一鍾을 煎七分하야 食前溫服호대 日再니라 蘇東坡得此하고 自謂神效라하야늘 後生小子가 多患此病하야 予累試之한대 累如所言하니라 (談野翁試驗方)

[譯]

③⑧ 기침하고 吐血할 때에 人參 黃耆 飛羅麩(밀가루) 各一兩 百合 五錢을 분말하여 물을 타서 오동나무 열매 크기로 丸을 만들어 五十丸씩 복용하되 食前에 茅根 끓인 물로 먹는다. ○ 朱氏集驗方: 人參 乳香 辰砂를 等分하여 분말하고 烏梅肉으로 반죽하여 彈子 크기의 丸을 만들어 白湯(끓인 맹물)으로 一丸씩 먹되 하루에 한번 服用한다.

④① 虛勞로 吐血할 때에 甚한 者는 먼저 十灰散으로 그치게 하고 그 사람이 반드시 困倦하면 의당 補陽生陰할 것이니 獨夢湯을 준다. 좋은 人參一兩 肉質이 좋은 대추 5개를 물 二鍾으로 一鍾이 되도록 달여 服用할지니 꼭 자고 깨어나면 十의 五,六이 減少되고 이어 調理藥을 복용할 지니라. (葛可久十藥神書)

③⑨ 吐血 下血이 七情과 酒色으로 인하여 氣血이 妄行하여 입과 코에서 함께 피가 나올 때 心肺의 脈이 터져서 피가 분수처럼 나오면 잠간사이에도 救援할 수가 없다. 불에 쪼여 말린 人參, 찌서 말린 側柏葉, 燒存性한 荊芥穗 各 5錢을 분말하여 二錢에 飛羅麩(밀가루) 二錢을 넣어 새로 길어온 물로 묶은 죽과 같이 만들어 服用하되 잠시 후에 다시 마실 것이니 한번 복용하면 곧 그치게 된다. (華陀中藏經)

③⑨ 코피가 그치지 않을 때 人參 버드나무 가지 (寒食때 採取한 것)을 等分하여 분말을 만들어 매번 一錢씩 복용하되 東쪽으로 흐르는 물로 服用할지니 하루에 세번 服用한다. 버드나무 가지가 없으면 蓮子心을 쓴다. (聖濟總錄)

④① 잇몸에서 피가 나올 때 人參 赤茯苓 麥門冬 各二錢과 물 一鍾을 七分이 되도록 달여 食前에 따뜻하게 服用하되 하루에 두번 먹는다. 蘇東坡가 이 處方을 얻고 스스로 神奇하다고 말하여 後生의 어린 아들이 여러번 이 病을 앓아 내가 여러번 시험해 보건대 누차 말한 바와 같았다. (談野翁試驗

方)

④① 陰虛尿血에 人參焙 黃耆鹽水炙를 等分爲末하고 用紅皮大蘿蔔一枚를 切作四片하야 以蜜二兩으로 將蘿蔔逐片蘸炙하야 令乾再炙호대 勿令焦하고 以蜜盡爲度니라 每用一片을 蘸藥食之호대 仍以鹽湯送下하고 以瘥爲度니라 (三因方)

④② 沙淋石淋에 方同上하니라

④③ 消渴引飲에 人參爲末하야 鷄子清으로 調服一錢호대 日三四服이니라 ○ 集驗: 用人參 栝樓根을 等分하야 生研爲末하고 煉蜜丸梧子大하야 每服百丸호대 食前麥門冬湯下하야 日二服 하고 以愈爲度니 名玉壺이니라 酒麩炙燻니라 ○ 鄭氏家傳消渴方: 人參一兩 粉草二兩을 以雄豬膽汁浸炙하고 腦子半錢을 爲末하야 蜜丸芡子大하고 每嚼一丸호대 冷水下니라 ○ 聖濟總錄: 用人參一兩 葛粉二兩을 爲末하야 發時에 以燻猪湯一升으로 入藥三錢하고 蜜二兩을 慢火熬至三合하야 狀如黑錫이든 以瓶收之하야 每夜에 以一匙含咽이니 不過三服에 取效也니라

④④ 虛癆寒熱에 人參二錢二分 雄黃五錢을 爲末하야 端午日에 用糝尖搗丸梧子大라 發日侵晨에 井華水로 吞下七丸하고 發前再服이니 忌諸般熱物하면 立效니라 ○ 一方: 加神麩等分하니라 (丹溪纂要)

④⑤ 冷痢厥逆하며 六脈沈細에 人參 大附子 各一兩半을 每服半兩호대 生薑十片 丁香十五粒 粳米一撮을 水二盞으로 煎七分하야 空心溫服이니라 (經驗方)

[譯]

④① 陰虛하여 尿血할 때에 말린 人參, 소금물에 담갔다가 炙한 黃耆를 等分하여 분말을 만들고 곱질이 붉은 큰 무우 1개를 네 조각으로 잘라 꿀 二兩에 무우를 조각마다 담갔다 炙하고 말렸다가는 다시 炙하되 태우지는 말고 꿀이 다하는 것으로 한도를 삼는다. 매번 한조각에 藥을 담가서 먹되 소금 끓인 물로 삼키고 병이 낫는 것으로 한도를 삼는다. (三因方)

④② 沙淋 石淋의 症狀에 處方은 위와 同一하다.

④③ 消渴로 물을 자주 마시고자 할 때에 人參을 분말하여 계란 흰자위로 섞어서 一錢을 먹되 하루에 서너번 服用한다. ○ 集驗: 人參 栝樓根을 等分하여 날것으로 잘라 분말을 만들고 꿀을 끓여 오동나무 열매 크기로 丸을 만들어 매번 100丸씩 먹되 食前에 麥門冬湯으로 삼켜 하루에 두번 服用하

고 낮은 것으로 한도를 삼으니 玉壺丸이라 이름한다. 술, 밀가루, 불에 구운 것을 꺼린다. ○ 鄭氏家傳消渴方: 人參 一兩 粉草 二兩을 솥에 돼지 담즙에 담갔다가 찌고 腦子 半錢을 분말하여 꿀로 芡子大의 丸藥을 만들어 매번 한 알씩 깨물어 먹되 冷水로 먹을 것이니라. ○ 聖濟總錄: 人參 一兩 葛粉 二兩을 분말하여 症狀이 나타날 때마다 돼지 삶은 물 一升到 藥 三錢을 넣고 꿀 二兩을 緩慢한 불로 졸여 三合에 이르러 모양이 검은 엇과 같이 되거든 瓶에 담았다가 밤마다 한 숟가락을 입에 넣고 삼키면 세번을 지나지 않아 효과를 볼 것이다.

④ 虛瘡의 寒熱에 人參 二錢二分 雄黃 五錢을 분말하여 端午날에 糶尖을 찢어서 梧子大의 丸을 만든다. 發作하는 날 새벽에 井華水로 7丸을 삼키고 發作하기 前에 다시 服用할 것이니 모든 뜨거운 것만 삼가하면 즉시 효력이 있다. ○ 一方: 神麴을 等分하여 넣었다. (丹溪纂要)

⑤ 冷痢로 四肢厥冷하며 六脈이 沈細할 때는 人參 大附子 各一兩半을 매번 半兩씩 服用하되 生薑 10쪽 丁香 15알 芩實 한 움큼을 물 二盞으로 七分이 되도록 달여 빈 속에 따뜻하게 服用할지니라. (經驗方)

⑥ 下痢噤口에 人參 蓮肉 各三錢을 以井華水二盞으로 煎一盞하야 細細呷之니라 或加薑汁炒黃連三錢이니라 (經驗良方)

⑦ 老人虛痢 不止하고 不能飲食에 上黨人參一兩 鹿角去皮炒研五錢을 爲末하야 每服方寸匕호대 米湯調下니 日三服이니라 (十便良方)

⑧ 傷寒壞證과 凡傷寒時疫을 不問陰陽이라 老幼 妊婦 誤服藥餌하야 困重垂死하며 脈沈伏하며 不省人事면 七日以後에 皆可服之니 百不失一이라 此名奪命散이며 又名復脈湯이니라 人參一兩 水二鍾을 緊火煎一鍾하고 以井水로 浸冷服之면 少頃에 鼻梁有汗出하고 脈復立瘥니라 蘇軾光侍郎云 用此救數十人이라하야는 予作清流宰할새 縣倅申屠行이 輔之러니 子婦 患時疫三十餘日하야 已成壞病이 어늘 令服此藥而安하니라 (王璆百一選方)

⑨ 傷寒厥逆하며 身有微熱煩燥하며 六脈沈細微弱은 此陰極發躁也라 ○ 無憂散: 用人參半兩 水一鍾을 煎七分하야 調牛膽南星末二錢하야 熱服立蘇하니라 (三因方)

⑩ 夾陰傷寒은 先因慾事하고 後感寒邪니 陽衰陰盛하며 六脈沈伏하며 小腹絞痛하며 四肢逆冷하며

嘔吐清水하나니 不假此藥이면 無以回陽이라 人參 乾薑炮 各一兩 生附子一枚를 破作八片하야 水四升半으로 煎一升하야 頓服하면 脈出身溫即愈니라 (吳授傷寒蘊要)

[譯]

④ 설사가 나면서 口噤이 올 때 人參 蓮肉 各三錢을 井華水 二盞으로 한 盞이 되도록 달여 조금씩 마실지니라. 或 生薑汁 炒黃連 三錢을 加한다. (經驗良方)

⑤ 老人의 虛痢가 그치지 아니하고 飲食을 먹지 못할 때 上黨人參 一兩 鹿角에서 껍질을 벗기고 炒하여 간 것 五錢을 분말하여 매번 方寸匕(사방一寸되는 숟가락)로 服用하되 쌀뜨물로 마실 것이니 하루에 세번 먹는다. (十便良方)

⑧ 傷寒의 壞證과 모든 傷寒의 時疫을 陰陽에 상관없이 치료한다. 老人과 어린아이와 妊婦가 藥을 誤服하여 困倦 沈重하여 거의 죽게 되었으며 脈이 沈伏하며 人事不省일때 七日以後에 모두 服用하여 百에 하나도 실수가 없으니 이를 奪命散이라 하며 또 復脈湯이라고 한다. 人參 一兩 물 二鍾을 센 불로 一鍾이 되도록 달여 우물물에 담가 차갑게 하여 服用하면 조금이나 콧잔등에 땀이 나고 脈이 회복되면서 바로 낫는다. 蘇軾光侍郎이 이르기를 이것을 써서 數十名을 구했다 하거늘 내가 清流의 邑宰가 되었을 때 縣의 부책임자인 申屠行이 나를 돕더니 며느리가 時疫을 三十餘日간 앓아 이미 壞病을 이루었거늘 이 藥을 服用시키자 편안해졌다. (王璆百一選方)

⑨ 傷寒에 四肢가 차며 몸에 微熱이 있고 煩燥하며 六脈이 沈細微弱한 것은 陰이 極해서 躁症을 發하는 것이다. ○ 無憂散: 人參 半兩 물 一鍾을 七分이 되도록 달여 牛膽南星 가루 二錢으로 섞어서 熱服하면 즉시 깨어난다. (三因方)

⑩ 夾陰傷寒은 먼저 房事를 하고 난 다음 뒤에 寒邪에 感觸된 것이니 陽衰陰盛하며 六脈이 沈伏하며 小腹이 쥐어 짜듯 아프며 四肢가 逆冷하며 맑은 물을 嘔吐하나니 이 藥이 아니면 陽을 回復할 수가 없다. 人參 炮한 乾薑 各一兩 生附子 一枚를 여덟조각으로 쪼개 물 四升半으로 一升이 되도록 달여 한꺼번에 먹으면 脈이 살아나고 몸이 따뜻해지면서 낫는다. (吳授傷寒蘊要) ○

⑪ 筋骨風痛에 人參四兩을 酒浸三日曬乾하고 土茯苓一斤 山慈姑一兩을 爲末하야 煉蜜丸梧子大하

야 每服一百丸호대 食前米湯下니라 (經驗方)

⑤2 小兒風癘 瘦癢에 用人參蛤粉辰砂를 等分爲末하고 以豕猪心血로 和丸綠豆大하야 每服五十丸호대 金銀湯下하야 一日二服하면 大有神效니라 (衛生寶鑑)

⑤3 脾虛慢驚에 黃耆湯이니 見黃耆發明下니라

⑤4 痘疹險證에 保元湯이니 見黃耆發明下니라

⑤5 驚後腫斜라 小兒驚後 腫人不正者는 人參 阿膠 糯米炒成珠 各一錢을 水一盞에 煎七分하야 溫服호대 日再服하고 愈乃止니 效니라 (直指方)

[譯]

⑤1 筋骨의 風痛에 人參 四兩을 술에 三日간 담갔다가 햇빛에 말리고 土茯苓 一斤 山慈姑 一兩을 분말하여 꿀을 달여 梧子大의 丸을 만들어 매번 100丸씩 服用하되 食前에 쌀뜨물로 먹는다. (經驗方)

⑤2 小兒가 風癘으로 瘦癢할 때 人參 蛤粉 辰砂를 等分하고 분말하여 숫돼지의 심장에 있는 피를 섞어 綠豆의 크기로 丸을 만들어 매번 50丸씩 먹되 金銀湯으로 복용하여 하루에 두번 服用하면 크게 神效하다. (衛生寶鑑)

⑤3 脾虛하여 慢驚風이 올 때에 黃耆湯을 쓰니 黃耆條의 發明下에 실려 있다.

⑤4 痘疹의 危險한 證狀에 保元湯을 쓰니 黃耆條의 發明下에 실려 있다.

⑤5 驚風後에 눈동자가 빠들어진 것을 치료한다. 小兒가 驚風後에 눈동자가 바르지 아니한 者는 人參 阿膠 (참쌀로 炒하여 구슬처럼 만든다) 各一錢을 물 一盞에 七分이 되도록 달여 溫服하되 하루에 두번 服用하고 나오면 그치니 神效하다. (直指方)

⑤6 小兒脾風으로 多困이거든 人參 冬瓜仁 各半兩 南星一兩을 漿水煮過 爲末하야 每用一錢을 水半盞에 煎二 三分하야 溫服이니라 (本事方)

⑤7 酒毒目盲이라 一人形實하야 好飲熱酒러니 忽病目盲而脈濇하니 此熱酒所傷이니 胃氣汚濁하야 血死其中而然이라 以蘇木煎湯에 調人參末一錢服한대 次日에 鼻及兩掌이 皆紫黑하니 此滯血行矣라 再以四物湯에 加蘇木 桃仁 紅花 陳皮하야 調人參末服하니 數日而愈하니라 (丹溪纂要)

⑤8 酒毒生疽라 一婦嗜酒하야 胸生一疽한대 脈緊而濇이라 用酒炒人參 酒炒大黃을 等分爲末하야 薑湯服一錢하니 得睡汗出而愈하야 效하니라 (丹溪醫

案)

⑤9 狗咬風傷 腫痛에 人參을 置桑柴炭上燒存性하야 以碗覆定하고 少頃爲末하야 摻之立瘥니라 (經驗後方)

⑥0 蜈蚣咬傷에 嚼人參塗之니라 (醫學集成)

⑥1 蜂螫螫傷에 人參末을 傅之니라 (證治要訣)

⑥2 脇破腸出에 急以油抹入하고 煎人參 枸杞汁淋之하고 內喫羊腎粥하면 十日에 愈니라 (危氏得效方)

⑥3 氣奔怪疾은 方見虎杖하니라

[譯]

⑤9 小兒가 脾風으로 困倦하거든 人參 冬瓜仁 各半兩 南星 一兩을 米음에 煮하였다가 분말하여 每 一錢을 물 半盞에 二,三分이 되도록 달여 溫服한다. (本事方)

⑤7 酒毒으로 눈이 안보이는 것을 치료한다. 한 人이 形體가 壯實하여 熱酒를 마시기를 좋아하 더니 갑자기 눈이 멀고 脈이 濇하니 이것은 熱酒에 의해서 손상된 것이니 胃氣가 汚濁하여 피가 그 가운데에서 죽어서 그렇게 된 것이다. 蘇木 삶은 물에 人參가루 一錢을 섞어 服用한대 다음날 코와 양 손바닥이 모두 紫黑色으로 變하니 이것은 막혔던 피가 行하기 시작한 것이다. 다시 四物湯에 蘇木 桃仁 紅花 陳皮를 加하여 人參가루를 섞어서 服用하니 數日만에 나았다. (丹溪纂要)

⑤8 酒毒으로 腫氣가 생긴 것을 치료한다. 한 婦人이 술을 좋아하여 가슴에 腫氣가 생겼는데 脈이 緊하며 濇하였다. 酒炒人參과 酒炒大黃을 等分 분말하여 生薑湯으로 一錢을 服用하니 잠을 자면서 汗出하고 나아 神效하였다. (丹溪醫案)

⑤9 개에게 물리고 바람에 손상되어 붓고 아플 때에 人參을 뽕나무 숲 위에서 燒存性하여 대접에 넣고 덮어 두었다가 잠시 후에 분말하여 뿌리면 곧 낫는다. (經驗後方)

⑥0 지네에 물렸을 때에 人參을 깨물어서 붙인 다. (醫學集成)

⑥1 벌에 쏘이고 전갈에 쏘여 傷했을 때 人參가 루를 붙인다. (證治要訣)

⑥2 옆구리가 깨져서 창자가 나왔을 때 급히 기 름을 칠해 집어 넣고 人參 枸杞子를 달여 汁을 뿌리고 羊腎粥(양신죽)을 먹으면 十日에 낫는다. (危氏得效方)

⑥3 氣가 奔動하는 怪疾은 處方이 虎杖條에 기재 되어 있다.

蘆 [氣味] 苦하며 溫하며 無毒이라 [主治] 吐虛勞痰飲이라 (時珍)

[發明] [吳綬曰] 人弱者는 以人參蘆로 代瓜蒂니라 [震亨曰] 人參은 入手太陰하야 補陽中之陰하고 蘆則反能瀉太陰之陽하나니 亦如麻黃이 苗能發汗하고 根則止汗하며 穀屬金而糠之性은 熱하며 麥屬陽而麩之性은 涼이니라 先儒謂物物이 具一太極이라하니 學者 不可觸類而長之乎아 一女子가 性躁味厚한대 暑月에 因怒而病呃하야 每作則舉身跳動하며 昏冒不知人이라 其形氣俱實이나 乃痰因怒鬱하야 氣不得降하니 非吐면 不可라 遂以人參蘆半兩을 逆流水一盞半에 煎一大碗飲之하니 大吐頑痰數碗하고 大汗昏睡一日而安하니라 又一人이 作勞發瘡하야 服瘡藥하니 變爲熱病하야 舌短痰嗽하며 六脈洪數而滑하니 此痰蓄胸中이라 非吐면 不愈라 以參蘆湯에 加竹瀝二服하니 湧出膠痰三塊오 次與人參黃耆當歸煎服하니 半月乃安하니라

[譯]

人參의 蘆頭 [氣味] 苦하며 溫하며 毒이 없다. [主治] 虛勞한 사람의 痰飲을 吐하게 한다. (時珍)

[發明] [吳綬가 이르기를] 사람이 弱한 者는 人參의 蘆頭로 瓜蒂를 대신한다. [朱震亨이 이르기를] 人參은 手太陰에 들어가 陽中之陰을 補하고 蘆頭는 도리어 太陰之陽을 瀉하니 또한 麻黃이 삭은 發汗시키지만 뿌리는 止汗하며 쌀이 金에 속하지만 겨는 性이 熱하며 보리는 陽에 속하지만 기울의 性은 涼한 것과 같다. 先儒가 이르기를 物物마다 하나의 太極을 갖추었다 하니 배우는 者 可히 종류마다 느껴 확대하지 못할 것인가? 한 女子가 성격이 조급하고 厚味만을 먹어 한 여름에 성념으로 인해 딸꾹질을 하여 發作할 때마다 全身이 움직이며 精神이 昏冒하여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 形體가 모두 實하나 痰이 성념으로 鬱滯되어 氣가 내려오지 아니하니 吐法을 쓰지 않으면 不可하였다. 드디어 人參의 蘆頭 半兩을 가지고 거꾸로 흐르는 물 一盞半에 큰 한사발이 되도록 달여 마시니 頑痰을 서너 사발 吐하고 크게 痰을 흘리고 하룻동안 昏睡에 빠졌다가 편안해 지니라. 또한 사람이 일한 뒤에 瘡疾이 생겨 瘡疾藥을 服用하니 熱病으로 變하여 혀가 짧아지고 기침할 때 痰이 나오며 六脈이 洪數하면서 滑하니 이것은 痰이 胸中에 쌓여 있는 것이다. 吐하지 않으면 낫지 않는다. 人參 蘆頭를 끓인 물에 竹瀝을 加해 두번

먹으니 阿膠같은 痰 세 덩어리를 吐하였고 다시 人參 黃耆 當歸를 달여서 먹으니 반달만에 편안하게 되었다.

Ⅲ. 結論

이 글은 結論을 導出하기 위하여 쓴 論文이 아니고 전체의 내용을 懸吐 翻譯하여 古典을 現代化하는데 一助를 하고자 쓴 글이다. 특징적인 것 몇 가지만 結論으로써 아래에 기록한다.

1. 人參의 語源은 人參에서 비롯하였으며 參은 浸漸의 뜻이 있는데 人參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서 成長하는 특징에 의하여 命名한 것이며 後에 參字로 대체되었다.

2. 人參의 異名은 모두 9개가 열거되어 있으며 여러 書籍을 引用하며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3. 人參의 產地로는 上黨山谷, 遼東, 邯鄲, 高句麗, 百濟, 新羅, 太行山 주위의 諸州, 泰山, 河北 樵場, 閩中 등이 소개되어 있으나 後世로 내려오면서 中國의 것은 거의 가짜이고 朝鮮의 것이 주로 流通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4. 李時珍의 父, 李言聞(號 月池, 字 子郁)이 人參傳上·下를 지었으나 지금 전하여 오지 않지만 《本草綱目》의 人參條에 要點이 되는 內容이 실려있어 人參의 效能과 活用に 대하여 깊이를 더하고 있다.

5. 附方을 크게 추가하여 人參에 대한 다양한 處方을 提示하여 活用に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李時珍의 《本草綱目》중의 人參條는 歷代의 文獻을 總涉獵하여 기록하였고 父親과 자신의 臨床經驗을 바탕으로 이제까지의 誤謬를 바로잡고 先人들의 未發을 開發하여 理論의 및 臨床的으로 크게 도움이 되는 內容이라 思料된다.

參考文獻

1. 李時珍著 劉衡如校, 本草綱目(校點本), 北京, 新華書店, 1979.
2. 陳貴廷主編, 本草綱目通釋, 中國, 學苑出版社, 1992.
3. 夏征農主編, 辭海(歷史地理分冊), 上海, 上海辭書出版社, 1989.
4. 地圖出版社編制出版, 中華人民共和國地圖集(縮印本), 上海, 新華書店上海發行所, 1985.